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社會變化에 따른 現代 婚禮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 婚禮 헤어 디자인 變化樣相의 分析을 중심으로 -

2011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東 和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仁淑

社會變化에 따른 現代 婚禮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 婚禮 헤어 디자인 變化樣相의 分析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new design of wedding hair and the
changes in wedding hair according to social environment

- Focusing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wedding hair design -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東 和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仁淑

社會變化에 따른 現代 婚禮 헤어디자인 提案에 關한 研究

- 婚禮 헤어 디자인 變化樣相의 分析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new design of wedding hair and the
changes in wedding hair according to social environment
- Focusing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wedding hair design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金 東 和

金東和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4
제 2 장 혼례의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혼례의 유래와 의미	7
1. 전통 사상과 의례	7
2. 혼례의 유래와 의미	7
제 2 절 전통 혼례의 의미	8
1. 전통 혼례 의식	10
2. 전통 혼례 복식의 의미	13
3.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	15
제 3 장 혼례 문화와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과 분석	20
제 1 절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문화 변화 요인	20
1.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 시대	21
2. 일제 강점기 단발령(斷髮令)시대	22
3. 6.25 이전 이후 시대	25
4. 새마을 운동 산업화 시대	25
5. 88올림픽 지구촌 시대	27
6. 디지털·정보화 시대	28
7. 다문화·글로벌 시대	29

제 2 절 혼례식과 혼례복의 변천	31
1. 혼례식의 변천	31
2. 혼례복의 변천	37
제 3 절 미용 산업의 발전과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	49
1. 미용 산업 발달과 유행 헤어디자인 변천 분석	49
2.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변천 분석	66
 제 4 장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 분석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제안	 83
제 1 절 현대 혼례 절차의 기준	83
제 2 절 현대 혼례 문화의 문제점 분석	85
제 3 절 혼례식 형태의 다양화와 혼례 헤어디자인	86
1. 혼례식 형태의 다양화 요인	90
2.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성	92
제 4 절 전통 혼례의 세계화 전략과 헤어디자인 제안	103
1. 다문화 사회로 시작하는 국제결혼시대의 전통 혼례 제안	104
2. 한류를 통한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의 세계화 전략	108
3. 현대에 나타나는 한국 전통복과 헤어스타일의 변화	113
4. 현대에 맞는 전통 혼례 문화와 헤어디자인 제안	115
제 5 장 결론	126
 【참고문헌】	 136
ABSTRACT	142

【 표 목 차 】

[표1] 연구모형	5
[표3-1] 시대별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변화 요인분류	21
[표3-2] 개화기시대 1900년 머리모양	76
[표3-3] 일제강점기시대 머리모양	77
[표3-4] 6.25 이전이후시대 머리모양	78
[표3-5] 산업화시대 머리모양	79
[표3-6] 디지털·정보화시대 머리모양	80
[표3-7] 글로벌시대 머리모양	82
[표4-1] 국제결혼 증감비율	106
[표4-2]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가별분포도	108
[표4-3] 국가별 한류 확산의 단계	109
[표4-4] 한류문화의 파생상품	111
[표4-5] 얼굴형에 따른 시각적 특징 및 인상	118
[표4-6]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디자인 제안	119
[표4-7] 달걀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0
[표4-8] 둥근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0
[표4-9] 긴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0
[표4-10] 역삼각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0
[표4-11] 사각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1
[표4-12] 마름모 얼굴형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23
[표5-1] 전통 혼례 및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 요인	130
[표5-2] 전통 혼례식의 변천	131
[표5-3] 혼례복의 변천	132
[표5-4] 미용 산업 발달에 따른 유행 및 혼례 헤어스타일	134

【 그림 목 차 】

<그림2-1> 전통 혼례 모습	10
<그림2-2> 친영·신부를 데려오는 모습	12
<그림2-3> 국혼의 복식	14
<그림2-4> 1981년 결혼 후 폐백	14
<그림2-5> 여성의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 1	15
<그림2-6> 여성의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 2	16
<그림2-7> 쪽머리	17
<그림2-8> 상투	19
<그림3-1> 스타트랙1 영화등장인물	30
<그림3-2> 전통 혼례복	38
<그림3-3> 1910년도 혼례복	39
<그림3-4> 1920년 혼례복	39
<그림3-5> 1930-1950년대 혼례복	40
<그림3-6> 1950년대 혼례복	41
<그림3-7> 1956년 노라노 패션쇼 웨딩드레스	41
<그림3-8> 1958년대 혼례복	42
<그림3-9> 1960년대 혼례복	42
<그림3-10> 1960-1970년대 혼례복	43
<그림3-11> 1980년대 혼례복	44
<그림3-12> 1981년 영국의 다이애나비	45
<그림3-13> 1987년 혼례	45
<그림3-14> 1990년대 혼례복	46
<그림3-15> 2005년 연예인 혼례복	47
<그림3-16> 2007년 연예인 혼례복	48
<그림3-17> 2010년 연예인 혼례복	48
<그림3-18> 쪽머리와 하이칼라머리	50

<그림3-19> 남자댕기	50
<그림3-20> 양반의 상투	51
<그림3-21> 쪽머리, 땡기머리	51
<그림3-22> 개화기 남성 머리	52
<그림3-23> 남학생 머리	53
<그림3-24> 김활란박사단발, 단발웨이브머리	53
<그림3-25> 민머리 스타일	55
<그림3-26> 1960년대 하이칼라머리	55
<그림3-27> 1970년 장발 단속	55
<그림3-28> 남성하이칼라머리와 여성단발 펌	55
<그림3-29> 윤복희 상고머리 ,미니커트, 우산 형 머리	57
<그림3-30> 72년 차이나롤링스타일	57
<그림3-31> 바람머리	57
<그림3-32> 77년 노바 커트 스타일	57
<그림3-33> 1970년대 머리모양	58
<그림3-34> 1980년대	60
<그림3-35> 염색스트레이트	60
<그림3-36> 상고머리	60
<그림3-37> 1990년대 바람머리	61
<그림3-38> 스포츠머리	61
<그림3-39> 레게스타일	61
<그림3-40> 스트레이트	61
<그림3-41> 세미롱 단발	61
<그림3-42> 로맨틱보브	61
<그림3-43> 닭벼슬머리	62
<그림3-44> 80년대 펌	62
<그림3-45> 90년대 굽은 웨이브	62
<그림3-46> 염색머리	62
<그림3-47> 걸마름 머리	62

<그림3-48> 96년대 뽀침 머리	62
<그림3-49> 봄 스타일	63
<그림3-50> 94년대 스타일	63
<그림3-51> 2000년대 여성 헤어디자인 1	64
<그림3-52> 2000년대 남성 헤어디자인	65
<그림3-53> 2000년대 여성 헤어디자인 2	65
<그림3-54> 평양의 전통 혼례	67
<그림3-55> 어여머리	67
<그림3-56> 하란사 팜프도어 머리	68
<그림3-57> 코머리	68
<그림3-58> 영왕비의 혼례머리(1920)	69
<그림3-59> 전통 혼례머리	69
<그림3-60> 왼쪽아래 팜프도어, 쪽머리	69
<그림3-61> 1930년대 이우왕자혼례, (하이칼라머리, 스킵웨이브)	70
<그림3-62> 1930년대 의친왕 이곤의 전통 혼례	70
<그림3-63> 1940년대 혼례 헤어디자인	70
<그림3-64> 1942년 남성 민머리, 1959년 남성 올빽 머리	71
<그림3-65> 양감을 부푼 머리	72
<그림3-66> 1960년대 백조머리	72
<그림3-67> 1960년대 혼례 헤어디자인	72
<그림3-68> 1970년대 혼례 헤어디자인	73
<그림3-69> 1980년대 화려한 혼례 헤어디자인	74
<그림3-70> 1990년대 중반까지 화려한 혼례 헤어디자인	74
<그림3-71> 2000년 자연스런 혼례 헤어디자인	75
<그림4-1> 폐백 드리는 모습	84
<그림4-2> 폐백사진	84
<그림4-3> 은지원 하와이 야외 결혼식	88
<그림4-4> 하우스웨딩	90
<그림4-5> 선, 정혜영 파티결혼	90

<그림4-6> 업스타일의 기본 디자인 기법	93
<그림4-7> 시농 업스타일	94
<그림4-8> 땅기&겹치기업스타일	95
<그림4-9> 꼬기, 말기 업스타일	96
<그림4-10> 여성의 다양한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	98
<그림4-11> 전형적인 현대 남성 혼례 헤어디자인	100
<그림4-12> 젊은 층의 현대 남성 혼례 헤어디자인	101
<그림4-13> 부드러운 현대 신랑 혼례 헤어디자인	102
<그림4-14> 남성적인 현대 신랑 혼례 헤어디자인	102
<그림4-15> 세계화한 한복 웨딩드레스	104
<그림4-16> 우리투자證,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공동개최	107
<그림4-17> 2007한국음식 세계화 박람회	110
<그림4-18> 겨울연가 촬영지 남이섬관광지	110
<그림4-19>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코리아 비보이 팀	111
<그림4-20> 한국 인기 걸 그룹	112
<그림4-21> 2007년 미스유니버스대회 이하늬 전통의상1위	113
<그림4-22> 2010동계올림픽피겨금메달김연아	113
<그림4-23> 최근 돌잔치에 나타나는 전통스타일	114
<그림4-24> 레드카펫위의 한복드레스 입은 여배우들	11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통해 유구히 지켜 내려온 우리 고유의 전통 혼례문화는 최근 100년 동안에 격동의 시대 상황에 맞물려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일제의 정치적 강압에 의해 서구식과 일본식의 혼합된 형태로 변형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의 혼란과 그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에 따라 매우 여러 차례의 인위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기도 하였다. 현대의 신식 결혼식은 전통 혼례의 원형이 사라진 가운데 현구고례(見舅姑禮)의 전통이 ‘폐백’의 형태로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로서 우리의 고유 전통 혼례문화가 일제에 의한 강압적인 변형을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의 전통을 되찾고 현대의 시대상에 맞게 발전시켜 우리의 전통 미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혼례는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하며 종족보존의 수단과 사회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혼례는 인류의 시작이며 사회, 국가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례는 예부터 가장 신성시 되고 중대한 것으로 여겨졌고,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절충되고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문화의 정신과 열이 담겨 있는 풍속과 전통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혼례의 풍속이 일제강점기의 단발령과 문화말살 정책인 ‘의례준칙’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제의 3대 조선총독 우가키¹⁾는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여러 정책의 하나로 1934년 11월에 “의례준칙”을 공포하여 비합리적이고 허례허식인 조선의 구식 답습을 금지한다며 정서적인 식민지화를 꾀하였

1)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우원일성), 1868.6-1956.4.30] 일본의 군인·정치가.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한 군비축소를 실시하고 군의 근대화에 진력했는데 군부 강경파의 반감으로 밀려났다. 두 차례 조선총독으로 부임했고 고노에 내각에서 외무대신 겸 척무대신을 지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정계에서 추방당했다.

다. 약혼식을 중요 절차로 삼고, 혼례 장소는 신부 집 이외에 신사나 사원, 교회당으로 확대했다. 혼례복도 한복 이외에 화복과 양복을 제시하였다.

해방 직후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미군의 영향으로 서구문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서구의 영화와 영화배우의 모습이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혼례식에 있어서도 서구식혼례와 일본의 혼례문화, 우리혼례문화가 뒤섞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다. 급기야 나라에서 혼례에 대한 준칙을 정하여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1년의 의례준칙과 1969년의 가정의례준칙은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혼례의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약혼식과 청첩장의 남발, 혼인잔치, 호화롭고 번잡한 혼례식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하기도 하였다. 결국 거의 모두가 신식에 의한 혼례를 행하게 되었고, 간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따르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1970년부터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이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이어 86 아시안 게임, 88올림픽이 개최되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선진국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으로, 후진국들에게는 따라서 배워야 할 개발 모형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문화의 확대와 사회의 다양성, 생활방식의 변화 등에 의해 우리의 혼례 풍속도 영향을 받아왔고 강제적 사건들에 의해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식 예식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문화의 일부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국가 간 물적, 인적교류 뿐만 아닌 정보와 문화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세계의 유행을 하나로 묶는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세계를 국제화, 글로벌 시대라 하며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한민족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

문화 시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산업인력 유입과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로 시작되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한국여성의 혼인시기가 늦춰졌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촌 지역의 남성들을 기피하면서 생겨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동남아계 여성의 유입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력이 없기에 사회단체에서 합동혼례를 올리고 있어서 혼례식이 값싼 이미지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증가는 한류라는 문화로 동북, 동남아시아 또는 유럽까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이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류란 말은 1999년 중국 언론이 만든 신조어로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든다.”는 뜻이다.²⁾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현지인들이 한국의 가요, TV드라마, 영화 등 한국 인기 연예인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는 사회문화의 현상이다. 이제는 단순한 대중문화의 선호단계를 넘어 한국의 음식, 패션, 스포츠 등 한국인의 생활양식 전반의 선호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시대, 글로벌시대는 세계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혼례 또한 인류문화 유산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의 얼과 문화를 보다 한국적으로 세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가장 한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美를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글로벌화 전략이며, 한국이 21세기 주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본 논문은 사회문화 변화에 따른 우리의 잃어버린 전통혼례 의미를 일깨우고 혼례 헤어디자인의 전통적 특성을 유지한 현대화 디자인제안에 하나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속의 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혼용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문화를 지키기 위한 전통에 대한 정체성확립과 재정립이 절

2) 유영미, 「한일 양국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22

실한 시기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 속에 한국 전통의 고귀한 미를 알리며, 한국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의 현대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세계 속에 현대화 된 한국 전통 혼례문화의 高부가가치화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전통혼례 헤어 디자인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양상을 역사 연구를 통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한국혼례의 변화 과정과 혼례복의 변천, 한국 헤어디자인의 발전과 혼례헤어 디자인의 변천을 분석하여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전통 헤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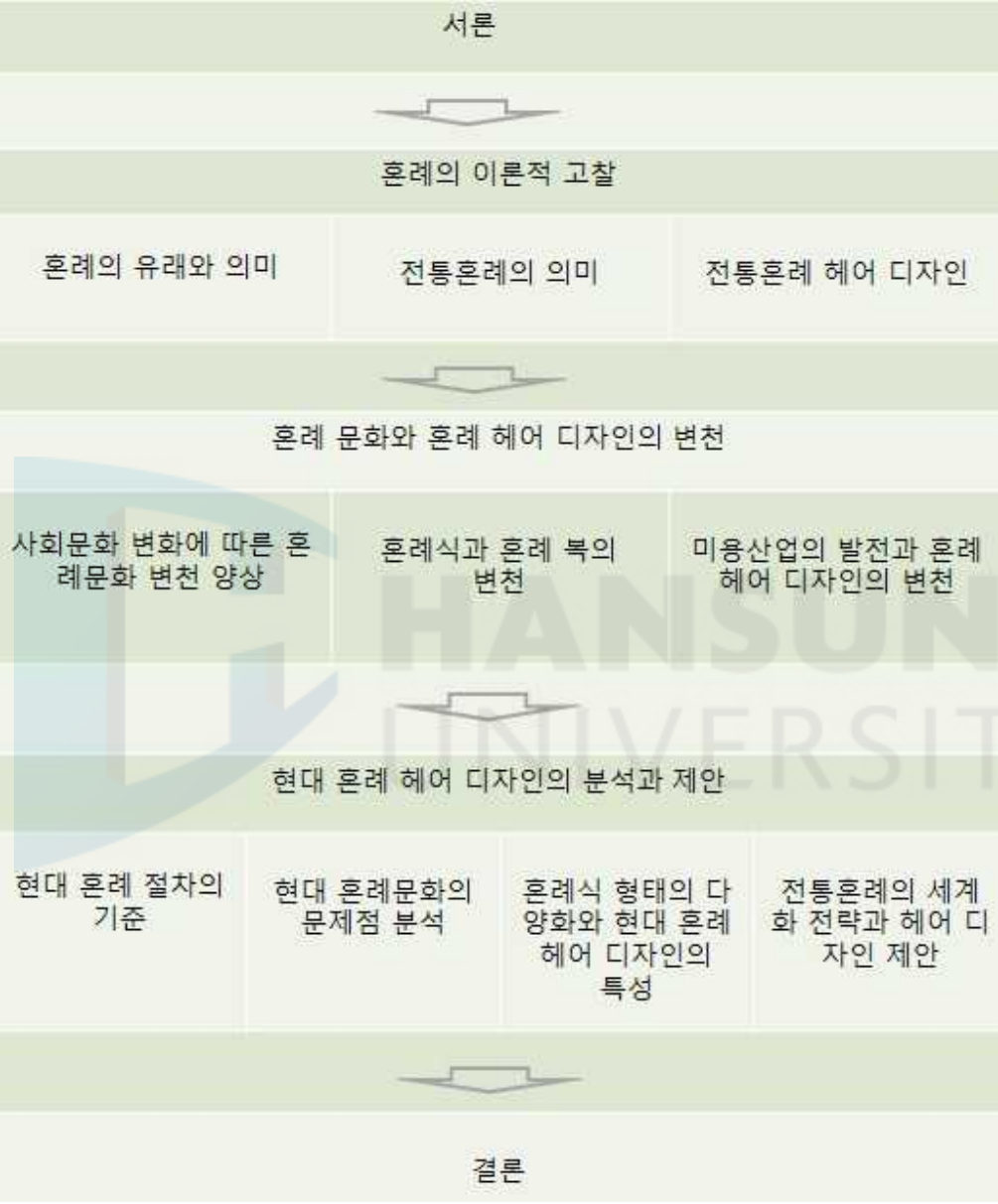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논문의 분석과 문헌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분석, 사진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분석으로 전통 혼례의 일반적 고찰과 혼례 헤어디자인의 사회문화 변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종교적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연구범위로는 1910년 일본의 단발령부터 2010년까지 약100년의 기간의 혼례 헤어디자인 변화를 역사적 맥락으로 개화기, 일제강점기, 6.25전쟁전후, 산업화시기, 지구촌시대, 디지털·정보화시대, 다문화 글로벌시대로 분류하여 신랑, 신부의 헤어디자인을 대표적인 스타일로 나누어 특징적 요소를 분류·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례복의 변화에 따른 각 시대별 머리모양도 분류하여 유행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모형



연구의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본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서술하고자 한다.

제 2 장은 연구의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전통혼례에 대한 고찰과 남성과 여성의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징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제 3 장은 2장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혼례문화 변천을 세부 항목으로 분석하여, 혼례식의 변천과정과, 혼례복의 변천, 미용 산업 발달에 따른 유행 헤어의 변천,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 4 장은 현대 혼례 문화의 현상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대 혼례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식 형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징을 남성과 여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우리만의 전통혼례를 현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혼례 헤어디자인을 얼굴형에 따라 현대식과 전통식을 접목한 디자인을 일러스트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 5 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의 전반적 진행과정과 연구 결과를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제 2 장 혼례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혼례의 유래와 의미

1. 전통사상과 의례

‘전통’이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물려주는 것’ ‘넘겨주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물림해 내려온 문화 요소, 즉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날로부터 이어내려 오는 사상, 행동 방식, 관습이라 하겠다.³⁾ 사전적 의미로는 ‘계통(系統)을 받아 전한다.’는 뜻과 ‘관습(慣習) 가운데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특히 높은 규범적(規範的) 의의를 지니고 전하여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⁴⁾

그러므로 전통(傳統)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닌 습속(習俗), 즉 풍속 등을 익혀 배우거나 되풀이하여 행하는 등 전대(前代)로부터 후대(後代)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하는 유동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전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옛것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야함이 아니라,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시대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전통의 뛰어난 것을 추려내어 창조적인 문화로 거듭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전통의 유지성과 전통의 변화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혼례의 유래와 의미

혼인이란 이성(二姓)의 결합이요, 백복의 근원이라 한다.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백년해로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고락을 같이 할 관계를 맺는 것이다.

3) 김소은,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6, p.4

4) 권순만, 『종합관혼상제』,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2002, p.15

혼례(婚禮)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는 종족 보존의 본능적인 성적 결합을 갖는 데 있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본능이 있는데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낸 것이다. 둘째는 혼인이란 특별한 정신적 관계로서 인격적 결합이다. 순결한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분별이 있고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 동안의 고락을 같이 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인격의 보완이며 자기완성의 기틀이 된다. 셋째로 혼인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사회 생활의 성립이다. 이 사회 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 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다 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혼인은 인간의 가장 큰 대사이므로 진지하고 경건한 제도를 따르게 된다. 제도라 함은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理想)의 추구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⁵⁾ 머독 제임스(Murdock JAMES)⁶⁾도 결혼이란 남녀 두 삶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 결합이라 정의 하였다.

제 2 절 전통 혼례의 의미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는 중국의 [예기(禮記)]에 기록되어 있는 고례(古禮)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예기]에 의하면 혼례는 아내를 맞는 예(禮)라 했고 아내를 맞는 데는 반드시 일몰(日沒)때를 택하여 예를 올렸으므로 혼례(婚禮)라고도 하였다.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온다는 뜻에서 밤에 혼례를 행한 것이다. 로마에서는 영처식(迎妻式)을 초저녁별이 나타날 때에 행하였고 일본에서는 신(神)이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강림(降臨)하지 않는다는 신앙에서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하여 밤에 행하였다고 한다. 결혼의

5) 남상민, 『한국 전통 혼례』, 한국예절 문화원, 1989, p.12

6) Murdock JAMES(1871-1949) 캐나다의 정치가

식은 민족에 따라서 서로 달랐으나 그 의식이나 행사의 뜻하는 바, 즉 결혼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 악령(惡靈)의 액을 면하려고 기구하는 마음 등은 서로 공통된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 여러 나라에서는 신랑 신부 집 대문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랑 신부로 하여금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도중에서 따라온 귀신악령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⁷⁾

이 밖에 불이 뜻하는 것은 신혼부부의 앞날에 광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장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은 옛날혼례를 밤에 올린 데서 나온 풍속이다. ‘쫄신도 제발에 맞아야 좋다’는 격으로 좋은 배우자를 가리는 방법의 하나로 궁합(宮合)이 생겼다.

궁합이란 남녀가 혼인을 앞두고 장차 결합될 경우 길흉을 미리 점쳐보는 것이다. 그 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오행(五行)의 상생상극(相生相剋)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구궁궁합(九宮宮合) 및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본다. 그런데 그 유래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시작되었는가 하면 중국의 한(漢)나라 한태조(漢太祖)의 아들 혜제(惠帝)때에 그의 모친인 여후(呂后)가 즉위하여 정권을 잡았었는데 당시 강족 한 흉노(匈奴)⁸⁾의 청혼(請婚)을 거절할 만한 핑계가 없으므로 구궁궁합을 만들어 혼인을 사양하며 피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남녀의 궁합법이 되었다.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세상이었기에 이족 이성과 결혼 하게 되고 주변 여러 나라의 침공으로 조혼의 습속이 있게 되고 이 민족과도 혼인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어 불행하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근세 조선조에는 남녀 내외법이 엄격하였으며 여자는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어있고 안방에서 윤택생활을 하였다. 일남 일녀가 혼인함에 있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중매인을 보내어 의혼하되 결혼당사자의 의사는 불문에 붙이고 오직 양 집 안의 가장들 합의하에 정혼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궁합법이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⁹⁾

옛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에서 혼인을 허락하기 전에 그 많은

7) 남상민, 『전계서』, 1989, p.28

8) 기원전 3-1세기 사이에 몽골 지방에서 활약한 유목 민족

9) 김광부, 『결혼사진 특강』, 해돋이, 1989, p.33

제약을 살피고 적합한 혼처인가를 알아보려고 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들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때로는 청혼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거절의 미덕으로 궁합을 내세웠다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림<2-1>은 전통혼례의 모습이다.



<그림2-1>전통혼례모습

(출처;<http://cafe.dayn.bet/usyc14>)

1. 전통혼례 의식

혼례 의식은 나라마다 신성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예식으로서, 인류의 대사이며, 곧 인류의 시작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 가운데서 전통 혼례는 어느 의식보다도 중대하고 신성하며 아름다운 일이다. 결코 경솔하게 거행되어서는 안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관혼상제례(冠婚喪祭禮)는 세종대왕 때에 제정되고 고쳐진 것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일찍이 세종대왕이 ‘가전충효(家傳忠孝)’라고 쓴 어필(御筆)이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효’에 대하여는 [효경(孝經)]에서 백행(百行)의 근원이라 하여 더욱 소중히 가르치는 것이다. “태조께서 지으신 법을 함부로 가벼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신 세종대왕은 조선시대 성군이라, ‘혼례’ 또한 소중히 하여 처첩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였다. 육례를 갖추어 납폐, 친영할 때에 신랑은 사모관대 의관을 정제하고 신부는 연지, 곤지를 찍고 족두리에 용잠을 꽂고 원삼을 곱게 차려 입는 것은, 성군명왕이 여민동락(與民同樂)하던 유풍

(遺風)이라 산간초동이나 여염집 처녀들의 소망이요 목적처럼 생각하는 일이다.¹⁰⁾

우리나라 전통혼례는 육례(六禮)와 사례(四禮)가 전해지고 있다. 사례는 육례의 예식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하여 육례를 줄여 의혼, 납채, 납폐, 친영으로 사례를 만들었다. 육례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육례 (六禮)

이 전통적인 혼례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등의 육례를 말한다.

(1) 납채 (納采)

혼인의 말이 있어 여자 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남자 집에서 기러기를 보내어 채택지례(採擇之禮)를 행하고 혼약을 청한다. 이를 납채라고 한다.

(2) 문명 (問名)

납채가 끝난 다음에는 장차 이 납채의 길흉을 점치고 여자집의 어머니 이름을 묻는다. 이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어머니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딸의 교육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상에서 어머니 쪽 집안의 가풍을 살펴려는 것이며 모계 중심 사회의 한 유습(遺習)이기도 하다.

(3) 납길 (納吉)

집안을 살펴서 좋고 합당하면 점을 친 결과를 여자의 집에 알린다. 이를 납길이라 한다.

(4) 납징 (納徵 또는 납폐納幣)

납길이 끝나면 남자의 집에서 폐백(幣帛)을 보내어 혼약의 징표로 삼는다. 이것을 납징 또는 납폐라고 한다.

(5) 청기 (請期)

납징의 절차가 끝난 다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혼례 날짜를 청한다. 이를 청기라 한다. 이 모든 예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사람을 보내어 하게 되는데 여자 쪽 주혼자는 사당에 자리를 펴 놓고 대문밖에 나와서 남자

10) 김광부, 『전게서』, 1989, p.192

쪽 사람을 맞아들인다. 남자 쪽 사람은 사당 앞에서 세 번 읊¹¹⁾을 하고 여자 쪽 주인에서 혼사에 대한 말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당에 대한 예의를 경건하고 신중하게 함은 혼례를 바르게 하기 위한 정성이었다.

(6) 친영 (親迎)



<그림2-2>친영·신부를 데려오는 모습
(출처;<http://cafe.dayn.bet/usyc14>)

그림<2-2>에서 보면 혼례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간다. 이를 친영이라 한다. 남자 집의 아버지가 몸소 그 아들에게 초례(醮禮)¹²⁾를 끝내고 명하기를 몸소 신부를 마중하도록 한다. 신랑은 여자의 집에 이르러 신부를 맞이한다. 여자집 주인은 사당에 자리를 마련한 뒤 사위를 문밖에서 절하며 맞이한다. 신랑은 기러기를 안고 들어가 읊양한 다음 당에 올라 재배하고 기러기를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랑이 몸소 신부를 그 부모에게서 받는 까닭이다. 신랑은 당에서 내려와 신부의 수레를 몬다. 이는 신부에게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다. 신부에게 수레 고삐를 잡게 하여 수레에 오르게 하고 신부가 올라간 후에 신랑은 재갈을 물리고 수레를 몰아 세 바퀴 돈다. 이 삼주의 풍속은 수레의 고삐를 신부의 손에 들려줌으로써 집안 살림의 주도권을 맡겨 준다는 뜻이고 수레를 돈다는 것은 남자는 집을 중심으로 밖으로 나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이란 숫자는 양(陽)의 1과 음(陰)의 2를 합한 3의 수(數)를 말하며 음양이 합한 한 가정임을 뜻한다.

11)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 펴면서 내림

12) 전통적으로 지내는 혼인 예식

세 바퀴 돈 후에 말을 부리는 사람이 수레를 몰게 된다. 신랑도 자기 수레에 올라타고 먼저 돌아와서 문밖에서 기다린다. 신부의 수레가 도착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절하며 맞아들인다. 그리고 뇌(牢)를 함께 먹고 근(飡)을 나누어 술을 마신다. 뇌란 소나 양, 또는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생(牲)을 함께 먹는다는 뜻이다. 생(牲)이란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삶을 함께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근(飡)이란 표주박을 두 쪽으로 나누어 만든 표주박잔(술잔)이다. 신랑 신부가 표주박 한 짝씩을 들고 술을 마시고 두 잔을 한잔에 합쳐 합배주(合杯酒)를 하여 마시는데 이를 합근(合飡)이라한다.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 삶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한 번 삶을 함께 하기로 굳은 약속을 하면 목숨을 마칠 때까지 고치지 아니하며 남편이 죽어도 개가(改嫁)하지 않는다고 했다.¹³⁾

이처럼 전통혼례의 격식이 엄하고 복잡해 보이는 것은 혼례란 한번 맺어져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해야 하겠기에 더욱 신중하고 신성하게 거행되었던 것이었다.

2. 전통 혼례 복식의 의미

동양철학에서는 우주 간에 운행하는 원기 소(原起素)는 만물의 주성분이 된다는 오원 소(五原素)를 오행(五行)이라고 하고 금, 목, 수, 화, 토(金木水火土) 즉 황, 백, 청, 적, 흑(黃白靑赤黑)으로 색채에 뜻을 새겼다. 그리고 남자는 홍색, 여자는 남색(<그림2-3>참조), 즉 혼례에 간한 것은 홍 청으로 색채를 정한 것에 근본을 두었다. 우리나라 혼례에서는 청실홍실이 결혼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청실홍실을 사주나 연길에 감아놓는 것이며, 모든 혼례 보자기는 청, 홍 두 겹 보자기가 쓰이고 있다. 폐백 보에도 시아버지의 예물은 홍색 보, 시어머니의 것은 청색 보를 사용한 것, 그리고 함의 예단에 청치마 홍치마 감을 넣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내려온 풍습이다. 다홍색 비단에 연화(蓮花) 모란(牡丹) 봉황 원앙 등 십장생(十長生)을 수놓은 활옷에 남색으로 안을 받쳐서 만든 것은 이성지합 백복지원

13) 남상민, 『전게서』, 1989, pp.29-31

(二姓之合 百福之源)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¹⁴⁾



<그림2-3>국혼의 복식
(출처: <http://www.okwk.com>)



<그림2-4>1981년 결혼 후 폐백
(출처: 이남옥, 「전통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56)

활옷에는 옷 전체에 수가 놓여있어 혼례복으로서 의미와 화려함을 더해 주었고, 목단(牧丹), 수(水), 석(石), 불로초(不老草), 봉(鳳), 집(蝶), 천도(天桃), 운문(雲紋) 등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었다. 목단은 꽃 중의 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므로 신부의 예복에 많이 표현된다. 연꽃은 길상(吉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뿌리와 연꽃줄기가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은 형제애를, 연꽃 열매와 씨앗은 자식을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는 염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봉황은 상상의 조류로 신비하고 화려하며 새들의 황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내려앉고, 평화, 번영을 누리는 때에 나타나는 새로서 격이 높은 봉황문(鳳凰紋)을 장식한 것은 혼례가 지니는 중대한 의미와 함께 한 가문의 신부의 부덕과 인격을 통해 영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염원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처럼 우리전통혼례 의복에는 작은 문양하나에도 무병장수, 부귀영화 같은 행복한 가정에 많은 자식을 두고 오랫동안 장수하기를 바랐다. 복을 바

14) 남상민, 『전계서』. 1989, p.100

15) 김인자, 「한국의 조형미가 나타나는 예복 디자인연구」 건국대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1

라는 것은 혼례복에 사방연속으로 문양이나 글자로 금박되어 복을 기원함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 현재나 옛날이나 복을 바라는 마음을 한결같다 할 수 있겠다.

3.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

일반적으로 전통(Tradition)은 문화, 문명 또는 사회전반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관습, 믿음, 행위의 집합체로 고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통이란 용어는 라틴어 트라데레(tradere)에서 온 말로 ‘전수하다(transmit)’ 또는 ‘가지고 가다(carry on)’의 뜻으로 변화와 발전의 과정에서 전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와의 접촉 없이 어떠한 문화도 전통은 유지 될 수 없으며 전통은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일시에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과거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문화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¹⁶⁾

1) 여성의 전통혼례 헤어디자인

(1) 얹은머리



<그림2-5>여성의 전통 혼례 헤어디자인1

(출처:<http://hair.culturecontent.com>, <http://cafe.daum.net/zeki/5Lc9/46>)

여성의 전통혼례 헤어디자인은 미혼여자의 머리형은 뒤로 땀아 늘인 머

16) 김진숙, 「한국여성 전통머리 양식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26

리가 일반적이었으며 대개 혼인 전날 올린 머리로 바꾸고 비녀를 꽂음으로써 기혼녀의 머리 형태로 바뀌주었다.

엷은머리는 보편적으로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만든 모든 머리모양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밑머리로 했던 가체머리로 했던 머리위에 엷어진 형태로 만들어진 머리모양을 일컫는 보통 명사¹⁷⁾이다. 엷은머리에 대한 정의는 <그림2-5> 어유미(於由味), 대수머리, 큰머리(거두미 巨頭味), <그림2-6>의 가체머리(트레머리)와 같이 가체로 꾸미는 엷은머리와 자기머리만으로 엷는 코머리라는 두발양식이 있으며, 삼국시대이후 고려, 조선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지고 있는 머리양식으로 혼인한 부녀자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이다. 엷은머리의 형태는 뒤에서부터 땡아 앞 정수리에 둥글게 그대로 틀어 올려 머리에 두르는 방법과 두발 전체를 뒤에 모아 묶어서 앞 정수리 부분에 올려 고정시키는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가체머리(트레머리)

코머리

<그림2-6>여성의 전통혼례 헤어디자인2

(출처:<http://blog.naver.com/eun940315/60090239345>,

<http://hair.culturecont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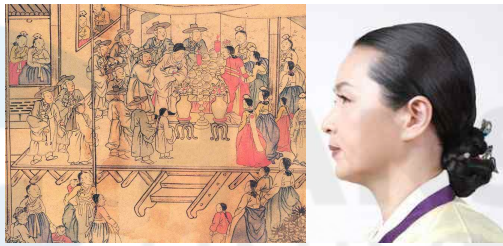
(2) 쪽진 머리

쪽머리는 조선시대 가체금지령으로 보편화된 머리양식이다. 쪽머리는 현재 기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정착되어 있지만 조선조에서는 처녀들도 쪽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즉 관례를 한 직후 쪽머리를 했으며 관례 전에 혼인을 한 여자는 혼인 전날 관례 때처럼 쪽을 지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여자

17) 손미경, 『한국여인의 발자취』, 서울: 미디어 뷰, 2004, p.358

의 관례가 없어지고 혼례와 함께 쪽을 지게 되어 쪽머리는 곧 기혼녀를 상징하게 된 것이다.

<그림2-7>의 쪽머리를 한 모습은 풍속도를 비롯해서 기록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처음엔 머리 뒤편에 했다가 차츰 아래로 내려가 조선조 말에는 저고리 바로 위에까지 내려온 형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다시 위로 올라와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이다.¹⁸⁾ 쪽머리의 형태는 앞머리 중간에 가르마를 타고 호트러짐 없이 좌우로 곱게 빗어 머리 뒤에 묶고 땀아서 끝은 땀기로 묶은 후 머리를 왼손에 둥글게 말고 땀기 시작한 머리끝에 땀기를 감는다.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 땀기가 보이게 타원형을 만들고 땀기 밑을 지나게 비녀를 꽂아서 쪽머리를 고정시키는 형태이다. 쪽진 머리는 두발의 쪽 위치에 관계없이 둥글게 묶어 만든 쪽머리(첩지머리, 조짐머리)가 있다.¹⁹⁾ 쪽의 위, 아래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림2-7>쪽머리(출처:<http://hair.culturecontent.com>)

쪽머리가 수 천 년을 두고 이어져 내려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쪽머리에 버금 갈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머리모양이 엷은머리인데 그렇게 뒤에서 올려 단장한 머리모양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지만 쪽머리의 뒤로 내려 단장한 머리모양이 오늘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한국 여인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우아한 한복의 선, 그리고 한국 여인 특유의 둥글고 흰 얼굴, 그런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모양이 곧 쪽머리이다. 쪽머리야말로 한복과 단정한

18) 손미경, 『전게서』, 2004, p.399

19) 김진숙, 「전게논문」, 2009, pp.27-28

태도와 더불어 한국 여인의 기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⁰⁾

2) 남성의 전통혼례 헤어디자인

(1) 상투

왕실에서는 혼례 전에 미리 관례를 올려 예를 갖추었으나, 민간에서는 혼례일이 임박하면 길게 땀은 미혼의 머리형을 성인의 상징인 상투머리로 바꾸는 형태의 약식 관례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풍습은 19세기말까지 계속되어 『한국과 이웃나라들』에는 당시의 관례 풍습은 소년의 두툼하게 땀은 머리를 푸는 의식은 많은 형식과 신중함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반경 6-7cm 정도의 둘레를 면도한 뒤 머리카락을 모두 위로 끌어올린 뒤 6.4-10.2cm의 길이로 땀아 머리 위에 뿔같이 세운다. 눈썹까지 오는 리본의 일종인 말총으로 얇게 엮은 뚜껑 없는 건이 그 위에 묶여진다. 또한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는 혼인날이면 머리카락을 두상 위로 감아올리고 온통 치장을 하였다. 옛 풍속에 따르면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하나도 잘라서는 안 되지만 서울의 멋쟁이들은 상투의 크기를 계란보다 더 크지 않도록 치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신랑은 총각의 땀은 머리는 혼인날 전에 친지 중에 한 분이 상투의 형태로 바꾸면서 간략하게 관례를 대신하였고, 상투를 땀시 있게 땀기 위해서 머리를 숨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배코 친다’ 또는 ‘백호 친다’라고 하였다.²¹⁾

20) 손미경, 『전게서』, 2004, p.404

21) 신혜성,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78



<그림2-8>상투(출처:<http://hair.culturecontent.com>)

원래 상투는 결혼을 하거나 성인식을 거쳤을 때 올리기 때문에 상투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성인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소갈머리가 없다’ ‘주변머리가 부족하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소갈머리는 상투를 틀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양반이 아닌 계층은 소갈머리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가문이 미비한 중인들이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신분 파악을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소갈머리 없는 놈’이 되는 것이다. ‘주변머리가 없다’는 것은 상투를 틀지 못한 아이들이 머리를 깎아서 말아 올린 쌍상투를 튼 것에서 이야기가 된다. 아이들은 주변머리가 아닌 생머리를 깎아서 새양머리를 만들어 다니는데, 만약 주체 파악을 못하고 양반집 자제와 같은 머리를 하는 평민이 있다면 눈치, 코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²²⁾

22) <http://moyangkorea.com>

제 3 장 혼례 문화와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과 분석

제 1 절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문화 변화 요인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천주교, 동학, 개신교 등과 같은 신종교 및 외래 종교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는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혼례, 상례, 제례와 같은 개인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전에 정착되었던 생활양식에 일제의 강제력이 동원됨으로써 한국인들에게는 사회구조, 생활 및 가치관의 변화가 타나났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문물이 직접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서양의 생활양식을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한국 사회는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기, 6.25전쟁, 1960년대의 4.19, 1961년의 5.16혁명과 군부정치, 1962년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 1972년의 유신체제의 등장, 1980년의 광주민주화 항쟁과 1988년의 올림픽, 1992년의 문민정부의 출범, 1997년의 IMF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은 ‘근대화’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생태구조의 도시화, 계층구조의 평등화 등의 변화를 갖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회변화라 할 수 있다.²³⁾ 100년간의 급박하게 변화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혼례문화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혼례헤어디자인의 변화요인의 구분은 개화기는 종교의 도입으로 인한 헤어변화가 크므로 갑오경자 이후 개화기를 종교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단발령에 의한 헤어디자인의 변화는 정치적인 강제성이 있으므로, 이후 6.25이전 이후까지를

23) 최진은, 「우리나라 웨딩문화의 특성과 소비자구매행동」,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4

정치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후 새마을 운동과, 88올림픽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등 라이프스타일도 크게 변하였다. 때문에 헤어디자인도 개성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의 요인별 구분을 표로 요약하였다.

[표3-1] 시대별 사회변화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변화 요인분류

종교적요인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	•일제강점기(단발령) •6.25이전 이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디지털, 정보화 시대 •다문화, 글로벌 시대

(출처: 논문 참조 본인작성)

1.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 시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점차 서양문물의 도입과 천주교 및 기독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876년 개항과 함께 정부는 국내외로 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에 앞장섰다. 특히 외국으로 보낸 홍영식(洪英植, 1855-1884), 등의 시찰단은 외국의 선진문물과 부국강병의 실상을 접하고 “나는 눈부신 광명 속에 갔다 온 것 같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진보된 서양문물에 감탄하였고 이런 진보된 문물을 조선에 들여오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1884년(고종21년)에 이루어진 갑신정변개혁은 서양문물을 접한 개화파 관료들이 주장한 양복 도입이 위정척사파의 반대에 부딪혀 복식을 간소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접근되어 이루어진 개혁이었다.²⁴⁾

이후 동학란,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여 근대화의 첫걸음이 시작 되었다.

조선말엽 기독교의 전파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통로가 되어

24) 유희경, 『한국 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pp.627-628

서 서구식 혼례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식결혼식 혹은 예배당 결혼식²⁵⁾이 나타나기 시작 되었다. 갑신, 갑오, 을미의제개혁은 복식의 간소화와 활동성을 추구하고 복식에 따른 신분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신분에 따른 의복이 개혁됨에 따라 여성의 독립된 인격체가 인정되었고 더불어 동학의 영향으로 사회신분 및 계급이 초월되어 인간 평등사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포교활동을 비롯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의식구조와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 등 생활의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의 남녀 조혼금지 및 과부재혼 허용, 신교육의 실시, 신생활 운동, 특히 단발운동의 전개 등은 개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2. 일제 강점기 단발령(斷髮令)시대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일제(日帝)의 식민지화되면서 개화기 일련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은 이 시기에 들어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제하에서 일어났던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 각종 교육진흥운동(教育振興運動), 산업진흥운동(産業振興運動), 등은 그 밑바닥에는 민족운동의 성격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철저한 탄압으로 대응하였고, 1911년의 조선교육령(祖先敎育令)을 비롯하여, 1915년 교육회(敎育會), 1920년의 사립학교 규칙 개정령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근대 교육의 시작 이래 민족 사상을 육성해오던 사립학교가 1911년부터 1921년의 10년 동안에 1,365개교가 문을 닫았다. 1914년 발발하였던 세계 제1차 대전이 종전하던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은 독립 선언문(獨立 宣言文)을 낭독하기에 이르렀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정책 가운데서도 여성의 근대 교육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신여성(新女性)’이라는

25) 이민정,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52

새로운 여성상을 등장시켰다. 신여성들은 여성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복식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정책적으로도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복식에서도 사회 환경적 영향을 받아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²⁶⁾

서구식혼례가 퍼지게 된 커다란 이유는 일본의 문화말살 정책이 있었다. 그것은 겉으로는 생활개선이라고 포장하여 한국의 전통인 혼례의식을 구식으로 저하하는 1934년 11월에 “의례준칙”이 강요되었다. 또한 일본의 강압에 의한 단발령이 있긴 하였으나, 당시 고종의 뜻이 독립신문에 단발령(斷髮令)과 군복(軍服)에 대한 기사로 실려, 교복(校服)과 단발을 개화의 상징으로 보았고,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희망으로 보았다. 하지만 황현²⁷⁾(黃玹, 1855-1910)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단발령이 실록의 기록과는 다르게 강제로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월 15일에 임금의 처음으로 삭발하고 중의 신민들에게 명하여 모두 삭발하라고 하였다. 두루마기를 입으라고 발표한 뒤부터 삭발한다는 말이 차츰 퍼지더니, 10월 중에 왜국 공사가 ‘빨리 삭발하라’고 임금께 위협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인산(因山)²⁸⁾뒤로 기한을 정했었다. 이에 이르러 길준과 회연 등이 왜군을 인도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둘러 가며 대포를 묻고는,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임금이 길게 한숨을 쉬고는 병하를 돌아보며 ‘그대가 내 머리를 깎는 게 좋겠소.’ 하였다. 병하가 가위를 가지고 임금의 머리를 직접 깎았으며 길준이 태자의 머리를 깎았다.²⁹⁾

이렇듯 단발령은 권유가 아닌 무력을 앞세워 강제로 행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백성은 반발심과 분노를 일으켰다. 상투는 조선시대 남성들의 전통적인 머리모양으로 상투를 트는 것이 남성의 상징인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효를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은 유교의 사회였고 유교는 치국의 이념이자 사회 교화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신체와 머리카락은 부모에게서

26) 나윤영,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6

27) 황현(1855-1910년9월7일)은 조선 말기 유교적 지식인으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자 자결로써 항거했다. 『매천야록(梅泉野錄)』 등의 저서를 남겼다. 아호는 매천(梅泉), 본관은 장수, 학자 황의돈과 일가

28) 태상왕, 임금, 황태자, 황태손과 그 비(妃)들의 장례, 국장(國葬).예장(禮葬).인봉(因封)

29) 황현, 『매천야록』, 한양출판, 1995, pp.234-235

물려받은 것이니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라 하여 단발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상투는 결혼한 남성이나 관례(冠禮)를 마친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성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상투를 틀면 그의 성(姓)뒤에 호칭을 붙이고 어른 대접을 하였고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이름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았다. 이처럼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투를 강제적인 명령에 의하여 자르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반발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³⁰⁾

1930년대는 일제의 강점기가 극에 달하던 시기이며 일본은 이 시기에 만주로 손을 뻗쳐,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다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전쟁의 최전방으로 군인과 종군 위안부로 끌려 나갔으며 국내에서는 모든 물자에 대한 수탈이 강행되었다. 1930년대에는 여성교육의 확대로 신여성이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교육 문제 및 여성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교육, 예술, 문학에서 여성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38년 3월에 제3차 개정 교육령이 공포되어 정과(正科)이었던 조선어가 그해 4월부터는 철저히 금지되었으며 문화적 말살운동이 시작되었다. 1940년대에 일본의 압제에 고통받던 우리민족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일제 치하에서 1945년 8월15일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후 어수선하던 정치, 경제, 사회 정비로 먼저 신교육제도를 1945년 10월에 학교 재개와 시기를 같이 하였고, 설치된 교육심의회는 한국 교육의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³¹⁾

일제강점기의 단발령은 전통적인 남성의 헤어를 순식간에 현대식 개화의 헤어로 바꾸어 놓은 헤어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한 혼례문화의 변화는 우리의 문화를 구식

30) 김이든,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12

31) 장미여, 「20세기 한국미용에 나타난 업스타일 기법에 관한 고찰과 재현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6

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으로, 구식은 버리고 신식의 혼례가 간편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6.25 이전 이후 시대

해방 이후 이른바 민주주의 교육은 제도 및 법적으로 남녀가 대등한 여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도가 빈번해졌으며 여성교육의 근대화와 민주화로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것은 이전에 내려오던 남녀 불평등의 인습을 타파시켜 가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전까지는 여성 지도자의 중심으로 여권 신장 및 여성교육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6.25 사변 이후 분단국가가 되자 다시금 사회는 보수적으로 후퇴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각각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 다소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는 듯하였으나, 안정의 기미가 보일 무렵 6.25사변이 일어났다. 다시 사회와 국가는 혼란 속으로 빠졌고 문화유산이 많이 유실됨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 전쟁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혼란이며 진통이었다. 6.25전쟁은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이 서로 힘을 겨룬 냉전시대의 산물로 엄청난 소모전이었고, 6.25로 표현되는 민족상잔의 비극은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으로 전쟁은 마무리 되었지만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파괴 되었고, 서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었다. 이 시기의 혼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혼례식 없이 사는 경우도 많았고, 간편한 혼례인 서구식 혼례가 늘기도 하였다.

4. 새마을 운동 산업화 시대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급박한 변화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였다. 1960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 및 문화가 도입되고 통

신과 교통이 확대되어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이동 그리고 대중 매체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은 각 가정마다 서양문화의 접촉 기회를 늘려 주었고 이는 국민들의 의식주 및 문화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선진국간의 경제 유대는 물론 문화교류의 기회를 늘려갔으며 TV의 보급은 국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을 바꿔놓았는데, TV출연자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르는 유행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양장생활이 보편화되고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의상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발표되던 서양의 컬렉션(collection)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신문, 잡지, TV 등을 통하여 서양의 작품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인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더욱 활발한 물류의 운송과 수출이 가능하여졌다.³²⁾ 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 및 경제개발 운동으로 인하여 국제경제의 안정 등 활발한 무역정책으로 섬유산업이 호황을 이뤄 이것이 우리나라 무역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GNP 상승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되었고,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를 가져 왔다.³³⁾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새마을’을 만들려는 운동으로 국민 개개의 생활향상과 민족의 시대적 이념인 조국근대화 이념과 일치했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뒤쳐진 경제를 이룩하였고, 세계가 놀란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다. 새마을 정신 및 조국의 근대화는 서구식혼례를 더욱 추구하는 인식으로 1973년 가정의례 준칙을 공포하여 혼례문화의 허례허식을 막고, 간소하고 검소하게 시행하자는 내용이였다. 이 시기의 혼례문화는 경제의 발전으로 더불어 무분별한 서구식과 일본의 약혼식 등 힘든 전쟁시기를 지나서인지 허례허식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과 국제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으나 중동의 건설 붐으로 외환 위기와 1973년 1차 석유 파동 등 중화학 공업의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에 의한 계획은 성공적이라

32) 나윤영, 「전계논문」, 2001, p.9

33) 문병옥, 「한국 여성 헤어스타일과 미용회보 표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남부대학교산업정보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p.15

할 수 있었다.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시켰고,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의 형태도 변화하여 레저(leisure)를 즐기는 문화도 나타났다. 매스 미디어 보급의 보편화와, 서구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문화는 점차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잡지, 신문 등은 1970년대 패션의 길잡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의 변화는 농민층이 도시로 유입되게 하였다.

5. 88올림픽 지구촌 시대

국제화는 무역과 투자, 기술의 흐름에서 국제적인 거래의 확산을 의미한다.³⁴⁾ 1980년대는 국제화, 개성화시기로 패션이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워지고 개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³⁵⁾

1980년대 초기에 석유파동, 광주민주항쟁 등으로 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산업이 침체되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공업화 추진 및 수출 증대정책에 힘입어 활성화 되었다. 수출이 증가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되었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여가를 중요시 하게 되었고, 개인의 취향도 감성화, 다양화, 개성화 되었다.³⁶⁾

1980년 12월 컬러TV의 방영은 우리생활 모든 면에 걸쳐 ‘색채혁명’을 가져왔다. 의복으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색채와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시켜 패션디자인, 광고디자인, 등 디자인 문화를 급성장시켰다. 대외적으로 개방화와 무역 자유화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이 증가³⁷⁾ 하였고, 여기에 ‘86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 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세계화의 경향이 높아졌다.

혼례문화는 눈부신 경제성장만큼이나 화려하고, 개성이 넘쳤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예식장이라는 장소에서 서구식혼례가 행하여 졌다.

34) 박선경외1인, 『디지털 시대의 한국적인 패션디자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p11

35) 이민정, 「전계논문」, 2008, p.59

36) 문화 관광부, 『우리 옷 이천년』, 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2001, p.160

37) 이영미, 「전계논문」, 2004, p.25

6. 디지털, 정보화 시대

1970년과 1980년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수준이 더욱 향상되었고,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로 급진전되었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탈산업의 사회적 기초가 마련됨으로서, 국제 교류의 팽창에 따른 국제의식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1990년 초의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는 영상 매체의 발달, 혹은 컴퓨터나 그 밖의 뉴 미디어(new media)와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매체의 영향이 지금의 신세대를 ‘신세대’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TV나 비디오를 필두로 하는 대중매체의 확산과 이를 통한 대중상품의 일반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 수준의 향상은 탈 물질적 생활관을 낳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인류의 보편적인 사회의식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³⁸⁾

예를 들면 지구환경보호, 인권보호, 자유와 평등, 인류애 적인 세계시민의식 등을 새로운 가치기준으로써 긍정하는 태도를 널리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적 지리적 귀속감도 크게 증대하고 있어 적게는 동호인 그룹에서 크게는 같은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적 단위가 새로운 일차적 생활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자의 생산과 분배보다는 문화적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생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³⁹⁾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라는 빌게이츠⁴⁰⁾의 말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⁴¹⁾의 ‘현재는 지식 디지털 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모든 기존조직과 관행, 사고, 경영 스타일을 뒤엎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

38) 문병옥, 「전계논문」, 2006, p.16

39) 나윤영, 「전계논문」, 2001, p.12

40) William HENRY .Gaates3 (1955년10월28일-) 마이크로소프트(MS)社 설립자

41) Alvin TOFFLER(1928년10월3일-)미국의 미래학자. [제3의 물결]에서 처음으로 재택 근무,전자 정보화 가정 등의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사회혁명 기업 혁명과 기술적 특이성 등에 대한 저작으로 유명

다’는 말은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한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앨빈 토플러는 ‘디지털 혁명으로’ 모든 게 바뀌고 신분상승과 하락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며 사회, 문화, 제도, 도덕, 및 정치적 혼란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도태되고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토플러가 예언한 ‘제3의 물결’은 끝내 전 세계를 혁명으로 몰아넣고 있다. 9000년 전 농업혁명,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이은 디지털 혁명으로 특징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이전 혁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업혁명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데는 5000년의 장구한 시간이 걸렸고 산업혁명의 여파 역시 20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은 단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만들어 버리는 통제 불가능의 혁명이다. 디지털 정보화는 이제까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구속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 시키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출현하기 이전의 사회에서 인간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해야 만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쇄매체의 등장 이후 시간을 극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제 인터넷은 지구의 어느 곳에서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⁴²⁾

이것은 전 세계의 유행이 하나의 형태로 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웨딩드레스나 헤어디자인은 그 시대의 유행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의 유입으로 유행을 따를 수도 있고, 개성 있는 혼례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7. 다문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사회란 <그림3-1>의 영화 스타트랙(Star-Trek)⁴³⁾에 나오는 것처럼

42) 박선경외1인, 『전개서』, 2009, pp.4-6

43) 스타트랙: 감독 Jeffrey ABRAMS(1966-) : 자연스럽게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세대를 넘나드는 방대한 이야기

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정부 안에 존재하는 단일국가라기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사회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역동적 사회를 말한다.



<그림3-1>스타트랙1 영화등장인물
(출처: <http://blog.naver.com/ishu42>)

특히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는 한 문화권 내에서도 사회 구성원 간의 응집력과 친밀도가 높은 소규모 사회로부터 대규모 사회가 역동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규모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가치관과 신념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 간에 상호교류를 통해 유행과 뷰티문화가 각 문화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공유될 것이다.

21세기를 접속의 시대(Age of Access)로 표현한 문화비평가 리프킨(Rifkin, 2001)⁴⁴⁾도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질 21세기에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는 개인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체험을 중시하는 문화생산 시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지적 자산이 매우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특히 21세기에는 국제화와 지역화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래사회에는 동질성과 독특성에서 모두 극대화되어 다양한 의복과 스타일이 공존한다. 글로벌 사회는 정보의 실시간적 이동으로 새로운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유사한 소비성향과 문화를 갖게 되어가고 있다.⁴⁵⁾

44) Jeremy RIFKIN(1943년1월26일-)워싱턴 경제동향연구재단의 설립자

45) 임숙자 외 3인, 『현대 의상사회 심리학』, 수학사, 2009, pp.258-263

한편 70년대의 도시화 현상으로 농촌의 총각들이 남아도는 사회적 문제에 따라 해외에서 아내를 찾는 신흥조가 생기기 시작하여 어느덧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결혼은 한류에 대한 꿈을 안고 동남아지역에서 가난한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현상이 되었으며, 이 들 또한 우리의 민족으로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필요한 때이다. 이들의 혼례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합동결혼식이나 아예 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들의 결혼식 역시 현대식으로 치러지고 있어 한국 전통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을 알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주는 결혼식에서 우리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혼례식을 알리고, 접할 수 있도록 전통혼례의 제도가 부분적이나 현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혼례식과 혼례복의 변천

1. 혼례식의 변천

1) 전통 혼례의 변화기

우리나라 전통 혼속은 진한에서는 ‘가취예속 남녀유별’이라 하였고, 이것은 혼인에 있어서 예로 행하여짐을 알 수 있다. 마한에 있어서는 남녀의 분별이 없다고 하며, 이처럼 남. 여의 분별이 없다는 것은 교제가 자유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여에서는 ‘형사취수 여흥노동속’이라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흥노와 같다. 즉 형사취수의 혼속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그 가족집단을 중요시하는 관념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옥저의 민며느리제가 거의 예외 없이 언급된다. 동옥저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면 혼인을 약속하고, 혼약이 이루어지면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

한다. 몇 년 뒤 신부가 성인이 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때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에 폐백을 요구하게 된다. 신랑은 이에 따라 폐백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며, 이 때 혼인은 완전히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혼속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서류부가 혼으로 이를 알아보면 남녀 간의 혼담이 성립되면 여가에선 자기 집 뒤에 소거를 세워 놓는데 이를 혼거라고 했다. 해가 지면 사위 될 사람이 집 밖에 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며 무릎을 꿇고 여자와 함께 동숙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이를 허락하여 혼거에서 여자와 함께 동숙하게 된다. 이때 사위는 준비해온 금전과 패물을 내어 놓는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장대하면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간다. 백제의 혼인풍속은 중국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일찍이 중국대륙과 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중국 예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라의 혼례에 대해서 특이한 것은 왕족간의 혈족혼인 근친혼을 들 수 있다. 구양 서에 이르기를 ‘신라에는 김씨, 박씨의 두 성이 많기 때문에 이성끼리 혼인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라의 골품제도에 의한 골 족의 순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고려시대의 혼례는 신라시대의 동성혼과 근친혼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나, 점차 유교예속의 영향으로 동성혼에 대한 논란이 생겨 이를 금하게 되었다.⁴⁶⁾

전통사회에서의 혼인 예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절차 없이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받아 현실에 맞는 혼인 예식으로 행해져 왔다. 한국 전통 혼인관행은 여가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의례이며, 음식상을 받고 잔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개적인 의례가 우리나라 혼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혼례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유교와 예속의 영향으로 고려중엽 이후부터 혼인예식이 점차 체계화되어 갔다.

2) 유교 영향의 전통 혼례 발전기

46) 신치균, 「혼례문화로 본 예식장 건축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9

고려 말에 송나라에서 새로 일어난 유학과 더불어 가례⁴⁷⁾가 들어왔고, 주자가례의 전래로 인하여 전통적 관습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다. 가례의 보급과 아울러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 등이 간행되어 일종의 국민윤리로서 그 시행이 권장되면서 예의식이 고취되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수용은 고려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편성함으로써 새로운 대건 체제를 질서화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했다. 조선이 건축된 후에는 왕조교체의 명분론을 제시하고 신왕조의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데 중심적인 이념체제로 작용했다. 특히 조선 초기 지배세력은 성리학을 종래 불교적 세계관의 우위에 놓고 유교적 이념도덕을 바탕으로 관료제적 통치 질서, 신분적 사회 질서, 가부장제 적종법제, 가족질서 등을 포함하는 새 왕조의 보편적인 질서체계를 수립했다.⁴⁸⁾ 특히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의 의례는 고유의 전통적 의례와 대비되었다. 국가 정책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 실제관행과의 차이를 나타내게 됨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의 제기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혼례에 있어서 유난히 강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주자가례의 혼례, 즉 친영례의 실천노력은 계속되었고, 전통의례인 서류부가 혼은 우리나라 혼인관행과 상관없이 친영례의 실행만을 강요하게 되었다. 전통의례인 서류부가 혼과 주자가례에 근거한 친영례와의 대립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과 부합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었다.⁴⁹⁾ 그러나 전통과 풍속은 강제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 적절히 절충되어야 할 것이다.

3) 친영례 도입에 따른 전통혼례 전환기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을 통한 유교이념의 음양의 원리를 지향하는 유교 이념과는 달리 전통혼례인 서류부가혼은 남자가 여가에 머물고 있는 형식

47) 가례란 송나라시대의 유학자인 주희가 주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주례』, 『예기』, 『의예』 등의 예에 관한 고서를 참고삼아 인정의 합당한 부분, 세속의 미풍 등을 고려하여 『가례』란 이름으로 책을 만들어 지금의 관혼상제의 절목으로 종합화 되었다.

48) 이은순, 『여말 선초의 사회변동과 성리학 사상의수용』, 지식 산업사, 1996, p.144

49) 신치균, 「전계논문」, 2007, p.21

을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 상반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례제도에 대한 정비의 일환으로 친영례가 도입되었다. 조선초기의 친영론은 서류부가하는 우리나라 혼인관행과 상관없이 친영례의 실행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이루어 졌으나 서류부가혼속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것은 혼례제도가 사회의 여러 문제와 결합하여 쉽게 변하지 않으며 복잡한 관행으로 유지되어 있고 생활전반의 의례 중에서 혼례만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혼례의 제도가 달라져 사위가 먼저 신부 집에 이르면 신부가 나와 예를 행하며, 교배합근(交拜合卺)하고, 다음날 구고(舅姑)를 알견(謁見)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일우귀(三一于歸), 삼일친행(三一親行) 등으로 불리는 반친영의 시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반친영의 시행이 이루어진 명종대에는 친영례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기 보다는 서류부가 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혼례를 새롭게 정비했고, 하나의 절충형태로 제안된 혼례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교배, 합근례의 혼례식을 올린 후 신부와 함께 본가에 돌아오는 것으로 반친영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혼례제도의 변천은 서류부가혼과 친영례의 대립을 통해 반친영이라는 상호 보완된 혼례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점차 서류부가 혼에 친영례의 의미가 결합 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 영조대에도 친영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통탄하는 논란이 반복되었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서류부가 혼속이 그대로 관행되었다.

4) 전통혼례 확립기

유교의 영향은 전통적으로 자유혼의 성격을 띠던 혼인 형식을 중매 혼으로 변화시켰다. 유교의 남녀유별은 남자금제의 안방존재, 장옷이나 너울로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습속, 부인이 낮에 외출하는 것을 금하는 풍속을 낳았다. 식사, 노동, 놀이, 오락 등에서 남녀의 분리, 언어, 문자, 사상, 신앙 등에서의 남녀유별 등 소위 내외법이 엄중하여 혼인은 당사자의 개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가장의 판단에 따라 결합하고 분리하는 중매 혼이 대부분

분이었다. 가부장적 질서로의 편입은 혼인이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이라는 의미보다 가계의 존속과 유지, 계승이라는 개념으로 의미가 변했다. 남계로 전승되는 가계권력은 남아선호사상을 낳았고 애정이 결여된 부부관계의 필연적인 대안으로 첩제(妾制)가 공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자와 적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계급사회가 되었다.⁵⁰⁾

고려 말 주자가례를 근거로 한 중국의 혼례를 도입하여,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사대부 층에서 가례에 준한 우리나라 혼례의 이상형을 다루어 제시하였다. 그 중 육례와 사례가 있는데 사례편람의 혼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5) 일본, 서구혼례문화의 이중구조

서구문화와 일제 강점기는 직·간접적으로 수입된 서구 문물과 새로운 사상의 흐름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생활문화의 변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전통적 의례의 형식이 변화하거나 간소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서구문화의 도입은 개화기시 기독교의 영향으로 두발 및 의복에 영향을 주었고, 혼례의식에도 영향을 받았다. 개화 초기에는 빈곤한 사회 계층과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일반 민가에서 몇몇 친지들과 간단하게 행하는 ‘복수결혼(福手結婚)’ 혹은 ‘작수성례(酌水成禮)’라 하는 혼례식이 행하여졌다. 복수결혼은 복 있는 사람의 손을 뜻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주관하였고, 작수성례는 찬물을 떠놓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지켜보는 데서 행하는 간소한 결혼이었다. 이규태의 『개화백경』에 의하면 복수결혼은 그 모습이 바뀌어 ‘예배당결혼’이라는 새로운 혼례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명동 천주교회에서도 신부(神父)의 집전으로 혼배성사(婚配聖事)라는 절차와 양식이 독특하고 분위기가 엄숙한 천주교인 사이의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1900년도에는 불교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라는 개량혼례가 등장하였다.⁵¹⁾

50) 박정숙, 「개화기 이후 한국 혼례복식의 변천동인과 미적특성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21

전통의례는 서구적 시각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기독교식 혼례’를 권장하는 등 ‘신식 결혼식’은 주로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전통 혼례의 또 다른 변화는 일제 통치기간을 통하여 혼례변천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을 들 수 있다. 의례준칙에서는 혼례의 장소로써 신부 집 이외에 신사와 사원 또는 교회당을 제시하였고, 혼례복도 한복 이외에 화복, 양복을 제안하였다.⁵²⁾

그리고 혼례과정에 일본 문화의 요소가 첨가되어 피로연이 잔치란 말을 대신하게 되었고, 답례품 풍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지역과 소수의 상류층, 지식인을 제외하면 전통적 봉건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도시에서는 ‘신식’ 혼례가, 농촌에서는 ‘구식’이라고 하는 전통 유교식 혼례가 지배적으로 행해지는 이중구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도 기존 혼례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존재하였으므로 ‘신식결혼’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거의 혼례와 신식 혼례의 병존 시기이면서, 일본식 혼례와 서양식 혼례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혼속이 점차 사라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⁵³⁾

6) 근대의 혼례문화

일제 강점기시대에 도입된 서구문화인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서구 교회 혼인식이 근대화와 산업화, 도시화로 신식이라는 명분아래 보편화되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더불어 전통혼례는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예식장에서의 신식혼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예식장 혼례식은 전통혼례의 핵심적인 부분을 생략한 뒤 서양식 혼례 후에 폐백이라는 절차가 붙고 피로연까지 치러지는 현대식 혼례양식이 대중화 되었다.⁵⁴⁾

51) 박정숙, 「전계논문」, 2004, p.37

52) 윤상수, 「혼례시설의 실내설계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6

53) 신치균, 「전계논문」, 2007, p.23

1969년 1월 16일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이는 허례허식으로 흘러가는 번잡한 혼인예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실천생활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9년 3월 5일에는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준칙이 확정된 후 4년간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여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규정을 두어 고루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온 국민이 검소한 의례를 생활화 하도록 노력해 왔다. 1973년 3월 13일 가정의례에 관한 개정 법률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동년 6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검소하고 간략한 새로운 혼속이 마련되었고 동시에 다양해진 개인의 생활양식, 종교의 영향, 신규 혼례의 혼재 등으로 혼례절차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⁵⁵⁾

가정의례준칙에도 불구하고 예물품목, 즉, 필수 품목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고소득층을 모방하려는 중산층의 모방심리가 혼례가치관에 작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물의 ‘필수품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사이로, 그 시기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반지, 고급시계가 등장, 1980년대 이후부터는 예물보석 세트가 필수 예물품목으로 등장하였다.⁵⁶⁾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지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예단을 전달하는 풍속이 정착하였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비교적 약혼식이 보편적이었는데 80년대 접어들면서 약혼식은 생략하고 양가어른들의 상견례로 약혼식을 대신하였다.

2. 혼례복의 변천

1) 전통 혼례복

54) 윤상수, 「전계논문」, 2006, p.19

55) 박정숙, 「전계논문」, 2004, p.37

56) 강정림, 「한국 사회 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61



<그림3-2> 전통 혼례복
(출처: 장미여, 「전개논문」, 2008, p.15)

1890년대에서 1900년대의 시기는 대부분이 전통 혼례로 <그림3-2>에서 신랑은 자적 색 또는 청색의 단령 포에 학 흉배를 달고 각대를 끼고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었으며, 신부는 녹색의 홍상위에 초록색 원삼을 입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모든 제도가 근대적으로 개편되어 감에 혼례도 이전의 복잡한 전통양식 절차를 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선말엽 기독교의 전파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통로가 되어서 서구식 혼례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식결혼식 혹은 예배당 결혼식으로 전통양식보다 적은 비용, 간략한 절차, 간단한 의복으로 모두에게 환영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복식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고종32년(1884) 관복을 개정하고 양복을 입게 하여, 일반국민들도 자연히 서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의 복식은 서구복식과의 이중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혼례식에 있어서도 종래의 육례, 사례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기 시작했다.⁵⁷⁾

2) 전통 혼례복의 서구화

부분적으로 결혼의식 과정이나 또는 흰색의 한복위에 베일이나 화관 같은 장신구들을 먼저 받아들여 일부 기독교신자들과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만이 흰색의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혼례복으로 착용하여 혼례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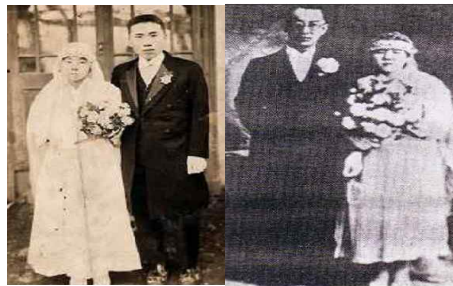
57) 이민정, 「전개논문」, 2008, p.52

하지만 절충적 혼례식은 일부에서만 한정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전통성을 유지한 전통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 3-3>은 절충식 혼례식으로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간이단령을 입고 각대에 신발은 목화를 신었다. 신부 혼례복은 흰 치마에 저고리를 입고 손에는 부케처럼 생긴 꽃다발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혼례복은 서구식 결혼으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⁵⁸⁾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결혼식은 1890 정동예배당 신도인 박신실과 강신성의 예배당 결혼식이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을 주관한 선교사들은 타인들로부터의 항거가 두려워 결혼예복은 전통혼례복을 입고 의식만 서구식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사실상 완전한 서구식 결혼은 1892년 이화학당 학생 황쾌래의 결혼식이었으며, 신부는 흰색 치마저고리에 면사포를 착용하고 신랑은 프록코트를 입었다.



<그림3-3>1910년도 혼례복
(출처: <http://news.naver.com/main>, <http://blog.naver.com/ubotem>)



<그림3-4>1920년 혼례복
(출처: 최진은, 「전계논문」, 2006, p.15, 이민정, 「전계논문」, 2008, p.63)

58) 정경희, 「한국의 조형미가 표현된 혼례복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76

1920년대에 들어서자 개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신여성이 등장하고, <그림3-4>에서 보는 것처럼 신부 치마의 길이가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졌다. 그리고 흰색 저고리에 흰색 양말, 흰 구두를 신고 흰 장갑을 갖추었으며 이마를 덮는 화관에 베일을 썼다. 개화사상을 지닌 비기독교인들도 점차 신식 결혼식을 택하였다.

1920년 4월8일 일본에서 거행된 조선왕조 마지막 영 왕비의 결혼식을 보면 신부는 이례적으로 일본 궁중복장을 하지 않고 당시의 아르누보 영향을 받은 자카드 공단 소재에 동양적인 색조와 실루엣이 두드러진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목은 라운드로 깊게 파고 소매는 팔꿈치 길이에 긴 장갑을 끼었으며, 치마길이는 발등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써 드레스의 뒷자락에 달린 트레인은 길고 폭이 넓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예복은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⁵⁹⁾

신식 혼례가 도입되긴 하였으나 전통적인 혼례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일부에서만 서양식의 웨딩드레스가 아닌 흰색 한복 형태의 절충된 드레스로 교회에서 서구식 혼례가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1930-1950 혼례복의 과도기



1932년 혼례복

1940년 혼례복

1950년초 혼례복

<그림3-5>1930-1950년대 혼례복

(출처: 이민정, 「전개논문」, 2008, p.64, 최진은, 「전개논문」, 2006, p.18, 정경희, 「전개논문」, 2007, p.82)

59) 이민정, 「전개논문」, 2008, p.53

세계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물자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부들이 원하는 색상이나 형태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할 수 없었다. 또한 물물교환을 통해서 웨딩드레스와 구두, 스타킹을 빌려 입기도 하였다. 1920년대 짧아졌던 치마 길이가 다시 길어지고 이러한 형태는 1950년대 까지 계속되었다. 1930년대 미디 길이의 신식 웨딩드레스가 등장하였고 망사의 베일은 이마를 덮을 정도로 착용하였으며 흰 장갑, 흰 양말, 흰 구두를 신고 아스파라거스로 장식한 최신식 꽃다발이 등장하였다. 1940년대는 1930년대 이후 양장의 파급이 활발해 신식결혼식을 많이 했으나 신부의 예복에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한복을 착용하였다.

베일은 이마를 덮을 정도로 눌러쓰던 형태에서 1940년도부터는 이마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길이도 길어졌다. 또한 명주를 이용하여 웨딩 한복을 만들었으며 치마에 부케와 동일한 꽃을 달아 장식하였다.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 화관을 쓰기도 하였다.⁶⁰⁾

1950년 6.25 사변의 발발과 더불어 잠시 평상복 차림으로 결혼식을 하기도 하였으나 휴전이 되어 평화를 되찾자 전쟁 중 서구화 유입에서 오는 사회적 영향으로 전통혼례식은 줄어들고 서구식 혼례가 일반화 되었다.



1953년 혼례

1958년 혼례

<그림3-6>1950년대 혼례복

(출처: 이남옥, 「전계논문」, 2006, p.55, 정경희, 「전계논문」, 2007, p.82)



<그림3-7>1956년 노라노 패션쇼, 웨딩드레스

(출처 :<http://cafe.naver.com/suhjs01>)

60) 최진은, 「전계논문」, 2006, p.16

1955년 이후 신랑은 예복, 신부는 한복차림에서 남녀 모두 서양식 복장으로 본격적인 서구식 웨딩드레스의 예식이 도입되었다.

서구식 웨딩드레스는 1930년 예식장에서 대여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말에 널리 보급되었고, 1956년 10월29일 국내 최초의 패션쇼를 통해 (<그림3-7>참조) 웨딩드레스가 노라노⁶¹⁾ 디자이너에 의해 발표되었다.

4) 서구 혼례복의 발전기

1960년대는 신부 결혼예복이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시기로, 이때부터 웨딩드레스는 일반복식의 스타일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천되었다. 이 시기 웨딩드레스는 일반복식의 스포티하고 경쾌한 스타일의 경향으로 단순한 스타일로 바뀌었다. 허리선을 강조하지 않는 A-line, H-line의 드레스를 입었고, 짧은 베일과 긴 트레인이 유행하였다. 짧은 베일과 트레인을 따로 달아 길게 늘임으로써 화려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967년 미니스커트가 큰 인기를 얻어 급속도로 번져나가자, 치마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미니 웨딩드레스가 등장하기도 했다.⁶²⁾



<그림3-8>1958년대 혼례복

(출처: 이남옥, 「전계논문」, 2006, p.55)



<그림3-9>1960년대 혼례복

(출처: <http://kin.naver.com>, 본인소장)

61) 노라노(노명자): (1928년3월21일-현재)1977년 예림양행 설립, 반도호텔서 국내최초 패션쇼, 고급 의상실 붐을 일으킨 1세대 패션디자이너

62) 최진은, 「전계논문」, 2006, p.19

1968년에는 판탈롱이 많은 여성에게 사랑받아 판탈롱 드레스가 출현했으나 예복으로는 환영받지 못하였다. 1970년대는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개성이 중시되면서 신부의 체형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었으며 섬유의 발달에 따라 소재도 다양해지고 레이스 사용도 증가하였다. 남성의 예복은 검정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흰색장갑을 착용하였다. 1970년대의 큰 변화요인으로서는 트레인이 사라지고 긴 베일이 등장하였으며, 섬유 발달에 따른 소재의 다양함으로 인한 레이스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비치는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여 시스루(see-through) 효과를 내었고, 구슬, 스팅클, 러플이나 레이스 장식으로 스커트가 화려해졌다.



1967년 혼례복

1972년 혼례복

1975년 혼례복



1977년 혼례복



1979년 혼례복

<그림3-10>1960-1970년대 혼례복 (출처: 67,75,77년 본인 소장,
이민정, 「전개논문」, 2008, p.66, <http://photo.naver.com/view>)

소매에 약간의 퍼프(puff)를 살리고 플레어스커트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실크나 노방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칼라사진의 보급으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간혹 색실이나 꽃, 색 테이프 등의 장식이 소매나 스커트 밑단에 약간씩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케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보석이 장식된 크라운 화관이 사용되었다.

5) 1980 가장 화려한 웨딩드레스 시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국내, 외 유행흐름에 따라 혼례복식도 유행을 추구하며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림3-11>1980년대 혼례복
(출처: 본인소장, <http://cafe.naver.com/beautynmusic>)

확일화되고 규정되어진 혼례복식의 형태가 아닌 혼례당사자들의 취향과 혼례식의 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혼례복이 등장했다.⁶³⁾

웨딩드레스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가장 화려해지는 시기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로맨틱 스타일을 부활시킨 <그림3-12>의 영국 다이애나비⁶⁴⁾의 웨딩드레스 영향으로 어깨와 스커트를 부풀리는 과장되고 화려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복고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63) 이남옥, 「전통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57

64) 다이애나 스펜서(Diana SPENCER:1961-1997)영국 찰스 왕세자의 빈이었으나 1996년8월 이혼, 이혼 후 대인지뢰 사용금지 운동, 1997년8월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1980년대 말에 유행한 웨딩드레스는 지금까지의 복잡한 디테일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을 크게 강조하였다. 레이스 장식보다는 코사지 장식이나 리본장식이 더욱 과장된 형태로 등 뒤나 허리, 어깨에 포인트를 주었다. 1989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흰색만을 고집하는데서 벗어나 아이보리색을 찾는 신부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3-12>1981년 영국의 다이애나비
(출처: <http://tab.search.daum.net>)



<그림3-13>1987년 혼례(출처: 서귀임, 「시대별 신부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p.12)

한편 세계화의 경향은 국제적인 교류가 높아지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복식에도 생활한복의 출현과 함께 우리나라 패션을 해외에 소개하기도 하고 일반복식에 고유의 한복 실루엣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⁶⁵⁾ 남성의 예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검정색 양복이나, 연미복, 턱시도를 입고 흰색장갑을 착용하였다.

6) 디지털, 정보화 시대

1990년대 말에는 밀레니엄을 희망하는 빛나는(shiny) 느낌과 광택이 없는(mat)한 느낌이 공존하였다. 90년대 패션 트렌드는 소비자의 개성이 중요시되었으며 이전의 스타일들이 재 유행 되어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로맨틱

65) 이민정, 「전계논문」, 2008, p.59

한 모던 스타일과 여성미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패션경향으로 인해 1980년대가 과장되고 화려한 경향을 보인 반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적으로 공단소재의 드레스나 장식이 절제 되면서도 고급스러운 품격과 도회적 세련미를 나타내는 드레스가 선호되었다. 트레인은 1980년대와 같이 길어지고 장식적인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고풍의 영향으로 버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⁶⁶⁾



1990년 초반 혼례



1993년 하희라 최수종 결혼



1995년 주말연속극 사랑과 결혼



1995년 주말연속극 사랑과 결혼

<그림3-14>1990년대 혼례복

(출처: 서귀임, 「전계논문」, 2009, p.14, <http://blog.naver.com/lhj5728>,
<http://blog.naver.com/figurestar>)

남성의 예복은 턱시도나 연미복이 인기를 끌었고⁶⁷⁾ 검정색보다 아이보리나 회색 등으로 컬러가 다양해 졌다.⁶⁸⁾ 종래에는 검은색 슈트에 흰색 타이, 좀 멋스럽게 차린 경우 더블 슈트에 나비넥타이 차림이 대부분 이었는

66) 최진은, 「전계논문」, 2006, p.24

67) 동아일보(1992년4월18일자)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25면

68) 경향신문(1994년3월14일자) :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11면

데 점차 텍시도 등 예복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남성복의 고급기성복 업체가 예복대여 사업에 시장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80년대의 레이스, 리본, 프릴 등의 장식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로맨틱 무드의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한가인 혼례

김남주 혼례

심은하 혼례

<그림3-15>2005년 연예인 혼례복

(출처: 『마이웨딩』, 2006년5월, p.243, <http://news.naver.com/main>,
<http://blog.naver.com/kskim719>)

2000년대는 심플하고 내추럴 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으며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드레스가 많이 선보였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코디네이션에 의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드레스의 선호도가 높고 기존의 복고풍, 로맨틱한 스타일과 함께 내추럴 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다.⁶⁹⁾

1994년부터 남성복의 컬러는 다시 아이보리색에서 검정색으로 돌아왔고, 텍시도는 일반화되었다.

7) 글로벌 시대

2000년 중반부터 현대 2010년까지의 웨딩드레스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상체노출의 과감해진 유행으로 탑 스타일의 웨딩드레스가 꾸준히 대중들에

69) <http://blog.daum.net/wddiva> (웨딩 디바의 드레스 이야기)

게 인기를 끌고 있다. 드레스의 디자인은 심플하나 크리스탈 장식으로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가 유행이다. 또한 실크소재, 새틴소재, 가벼운 소재의 드레스가 눈에 띄며, 헤어나 메이크업은 러블리한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의 예복은 크게 변화는 없으나, 넥타이보다 보타이가 눈에 띄는 현상이다.



오윤아 혼례



서민정 혼례

<그림3-16>2007년 연예인 혼례복

(출처:<http://blog.naver.com/sabaly73>, <http://cafe.naver.com/shyshy0326>)



S.S. Min 혼례



장동건, 고소영 혼례

<그림3-17>2010년 연예인 혼례복

(출처:<http://blog.naver.com/hanc2010>, <http://fotoya.net/common/photoviewR>)

제 3 절 헤어디자인의 발전과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

1. 미용 산업 발달과 유행 헤어디자인 변천 분석

미용 산업 발달에 따라 헤어스타일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미용 산업 발달에 따라 유행헤어의 변화 역시 혼례헤어스타일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용 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입기, 발생기, 성장기, 성숙기, 확장기로 나누었다.

1900년부터 1929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전통헤어스타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미용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미용 산업의 시작을 알린 시기이다. 따라서 1900년부터 1929년까지를 미용 산업의 도입기로 구분 하였다. 1930년부터 1949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미용 산업에 참여하고 미용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으므로 미용 산업의 발생기로 나누었다. 1950년부터 1979년은 미용이 대중화되고 국제적인 무대에 발판을 마련한 미용 산업이 구체화 되어가는 시기였다. 때문에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1980년부터 1999년대는 미용이 토탈 패션으로 자리 매김 하고 기업화 되었으며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성숙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대는 미용의 전문화시대로 확장된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1) 도입기 (1900-1929)

개화기 이후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들에 의해 헤어스타일 양식이 변화하였다. 전통 양식의 헤어스타일을 한 여성이 대부분이었고, 유학과 여성에 의해 서양의 헤어스타일을 접하게 되면서 전통과 서양의 중간적 성향을 띤 변형 양식의 헤어스타일이 나오게 되었다. 1920년에 일본인이 경영한 경성 미용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이자 미용 광고를 신문에 낸 시기로 미용 산업의 시초로 미용 업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용실은 일반인은 찾아 볼 수 없었고 특수층만이 출입 하였다.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은 신여성으로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신교육을 받은 여학

생들이 유행시켜 차츰 일반인에게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듯 헤어스타일에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어 전통 양식과 서양 양식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도입기는 헤어스타일 양식의 새로운 변화와 미용 산업이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행헤어스타일은 개화의 바람이 불긴 하였지만, 전통적인 스타일이 대부분 이었다. 조선시대에 사치풍조 등 가체(다래)의 문제점으로 인해 나라에서 가체를 들인 큰머리의 유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한말(韓末)에 이르러 사대부의 부인이나 양반 또는 여염집 여자가 궁중에 입궐 할 때 큰머리를 하였고, 다시 유행하여 가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헤어스타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유교사상과 보수적 성향으로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쪽머리, 땡기머리를 계속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1940년대 이후까지 나타났다. 처녀들의 땡기머리에 비해 쪽머리는 더 오래 지속되어 현재에도 노인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개화의 바람과 단발령으로 이발소가 생겨났는데 이발소의 처음 이름은 ‘개화당 체조소’였다. 당시 서울에는 이발소가 없었으며, 조선인들은 이발 기구를 보에 싸 가지고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깎았다. 이 시기에 남성들은 상투머리나, 개화머리인 하이칼라 머리모양을 했다.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머리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땡기머리를 하였다. 땡기머리는 <그림3-19>처럼 결혼 전 미혼 남성의 머리에서도 나타났다.



<그림3-18>쪽머리와 하이칼라머리
(출처:장미여, 「전계논문」, 2008, p.15)



<그림3-19>남자땡기(출처:김수정,
『한국미용100년』, 2005년, p.26)



<그림3-20>양반의 상투 (출처:
이영미, 「전계논문」, 2004, 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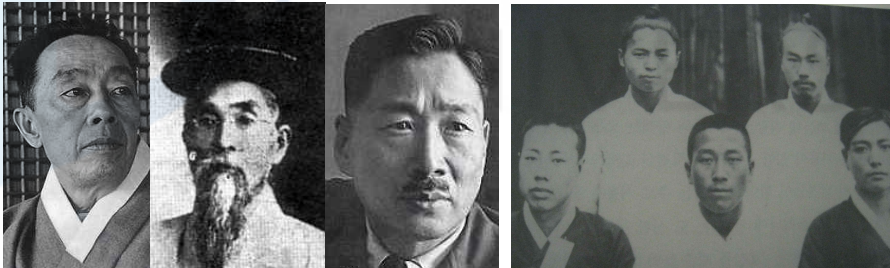
<그림3-21>쪽머리, 땡기머리
(출처: 장미여, 「상계논문」, p.15)

땡기머리는 각 시대별로 길이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엉덩이 밑까지 치렁거리던 머리끝이 점차 저고리 위 길이까지 짧아지기도 하였다. 또한 귀 옆머리를 풀거나 옆가리마를 하기도 하고, 귀를 가린 채로 뒤로 땡아 내려 귀 가리 머리라는 저항적 헤어스타일을 하기도 하였지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 신교육을 받은 진보적 성향을 띄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서양식 헤어스타일은 1906년 고종의 마지막 공관장을 지냈던 김윤창의 부인 고순영이 풍파두르 스타일⁷⁰⁾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사 하란사 역시 미국 유학을 마치고 풍파두르 스타일을 하고 귀국하여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다. 1907년 최활란도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풍파두르스타일을 했다. 이때부터 머리를 틀어 엮는 것이 차츰 유행하였다. 풍파두르 이후 가체를 이용한 올린 머리 스타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시기부터 머리모양에 혼용 양식이 나왔다. 가체는 당시 특별한 머리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머리 기구로서 머리를 부풀리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트레머리, 둘레 머리 등이 있었고, 가체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을 1940년대까지 찾아 볼 수 있었으나 머리심의 분량이 줄어들자 서민 스타일로 복귀하게 되었다.

70) 풍파두르(pompadour)스타일: 일본식 발음으로 팜프도어라고 하고, 또는 땡머리 혹은 일본식 표현의 히사시가미라고 불린다. 이마 위에 모자의 땡같이 볼록 내밀게 빗었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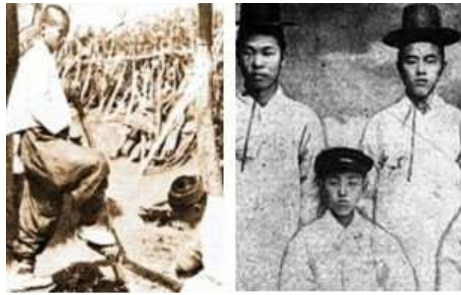
2) 발생기 (1930-1949)

여성의 근대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생활의 전반적인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을 위한 직업인 미용사가 생겼고, 1933년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화신백화점에 창설한 오엽주의 화신미용부가 최초 미용실이었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미용 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웨이브를 내는 아이론, 세트, 퍼머넌트의 미용 기구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미용실의 주된 고객은 신여성, 고위 관료의 부인, 영화배우 연극배우 기생들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일반 여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광복 후 많은 미용실이 생겨났고 미용실 업주들은 미용인의 권익 보호 및 친목을 위하여 미용조합연합회 구성과 1948년 서울시 위생과의 주관으로 제1회 미용사 자격증시험이 치러졌다. 자격증 소지자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게 되는 등 미용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성들의 머리는 6.25전쟁의 영향으로 민머리가 많았고, 전통적인 머리는 갓을 쓰는 정도이거나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림3-22>개화기 남성 머리

(출처: <http://everyoung.ne.kr>, 김수정, 『전계서』, 2005, p.29)



민머리

학생머리

<그림3-23>남학생 머리

(출처: <http://blog.naver.com>, <http://www.saemoonan.org.church>)



<그림3-24> 김활란박사단발, 단발웨이브머리

(출처: 김수정, 『전계서』, 2005, p.69, 163, 167)

여성의 단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머리 형태로 사회의 논란이 되었다. 그것은 남자의 단발령이 강제적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형태였다면, 여자의 단발은 기능적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의에 의해서 선택한 여성 해방 스타일이라 본다. 서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성 복식과 헤어스타일이 기능적으로 변화하면서 단발머리가 유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 일부에서 유행했던 단발형의 헤어스타일이 점차 늘어나 단발 미인, ‘모던 걸’ 이라는 신 용어가 나올 만큼 단발의 유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1920년대부터는 아이론, 세트, 퍼머넌트 기구를 이용한 웨이브 있는 머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단발이라 할지라도 웨이브가 있는 단발이 유행하였고, 1937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긴 머리를 자르고 펴를 하기 시작하였다. 펴는 일본을 통해 바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보급되어 도시 멋쟁이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당시 일반적으로 유행한 헤어스타일은 일본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본받은 까미머리였다. 모든 새로운 문화가 처음 유입될 때 논란이 있듯이 퍼머넌트 웨이브 역시 시대의 논란이 되어 사치 풍조라는 이유로 금지되다가 광복 후 다시 등장하여 퍼머넌트 웨이브의 유행은 계속되었다. 당시 미용 기술로는 전체에 웨이브를 내는 것이 힘들어서 머리의 앞부분과 끝 부분에 주로 웨이브를 넣어 바깥 말음과 안 말음을 응용한 몇 가지의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머리 길어도 짧은 머리에서부터 단발 길이와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까지 외국영화 배우 스타일의 영향으로 머리 길이도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웨이브는 주로 세로 모양의 웨이브와 굽은 웨이브 스타일을 하였다. 웨이브의 등장으로 전통적 헤어스타일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3) 성장기 (1950-1979)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미용실은 미용 기구가 잘 구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윤택해지자 사람들은 미용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미용실을 찾는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미용실이 대중화되었다. 더불어 미용실 수 또한 늘어났다. 직장 여성의 증가는 간결한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고,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액이 수입되어 전기나 가봉 퍼머넌트 웨이브의 번거로움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한 미용사협회는 세계 진출을 위하여 미국 뉴욕의 I.B.S.에 1972년 참가하여 수상하였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헤어 기술이 국제무대에 선보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계 유명 미용사의 스타일까지도 받아들이는 등 미용이 국제화시대에 도입하게 되었다. 더불어 김창석에 의하여 『월간 현대미용』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종합지가 발행되어 미용계의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그림3-25>민머리 스타일
(출처: <http://everyyoung.ne.k>)



<그림3-26>1960년대 하이칼라머리
(출처: 본인소장)



<그림3-27>1970년 장발 단속 (출처: <http://cafe.naver.com/mamj8836>)



<그림3-28>남성하이칼라머리와 여성단발 펌
(출처: <http://everyyoung.ne.k>)

헤어스타일의 양식적 특징은 1950년대까지 전통적 양식이 지속되었고, 1960년대부터 현대적 양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시기로, 커트 기술의 향상으로 다양한 커트 형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영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일명 헵번 스타일이라 불리는 커트를 기점으로 1960년대 들어 다양한 커트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반적인 유행의 흐름이 부폰 스타일이었기 때문

에 1960년대 초에는 짧은 커트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으나 1963년부터 1964년에는 밥 스타일(bob style)이 유행하면서 커트스타일의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965년경부터는 가발 붐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헤어스타일을 얼굴형과 옷차림에 맞춰 개성 있게 선택함으로써 더욱 세련되게 멋을 낼 수 있었으며, 1966년에는 남자처럼 아주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두상의 뒤 라인을 살린 기하학적 커트가 1967년 등장하면서 윤복희의 상고머리 이후 많은 여성들에게 대중화되었다.(〈그림3-29〉참조) 커트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것은 1970년대에 들어온 비달 사순의 기하학적 커트의 영향으로 머리를 자른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각도에 의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전반기는 커트 붐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로 자연스러운 경향의 개성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든 시기였다. 이때 유행한 대표적 헤어스타일은 일명 거지 커트라고 불리었다. 이 커트는 뒷목덜미 부위에 길게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형으로 커트한 형태였고, 상고머리 또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스타일로 유행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고르게 층이진 웨지 커트와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유행과 어울리는 여성미를 가미한 스타일의 머시룸 커트, 엠브렐러 커트도 인기를 끌었다. 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을 바람결 스타일이라고도 하였는데 유연하고 자연스런 머릿결의 움직임이 있는 가벼운 웨이브 스타일이었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 커트와 그에 따른 펌이 유행하였는데 펌의 머리에 블로우 드라이를 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머릿결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1970년대 말에는 형에서 탈피해 모발의 질감과 흐름에 포인트를 준 개성을 강조한 콘 케이브 커트가 유행하였고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커트 스타일이 개발된 시기였다.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더욱 다양해져서 하이칼라 머리는 계속 유행하여 상고머리로 발전하였고, 미용기기의 발전으로 긴 스포츠머리나, 짧은 스포츠머리도 나타났으며, 가르마 없이 완전히 빗어 넘긴 소위 ‘올빳’형 머리도 나타났다. 70년대에는 사회정치적 불만이나 저항이 나타났고 히피의 영향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반항의 한 부분으로 귀를 덮을 정도의 긴 장발

이 유행하여 <그림3-27>에서 보듯이 1970년과 1973년에 거리에서 삭발을 하는 등 강제단속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3-29>윤복희 상고머리 ,미니커트, 우산 형 머리
(출처: 김수정, 『전계서』,2005,p.212,230,242)



<그림3-30>72년 차이나롤링스타일
(출처: 김수정, 『상계서』,p.242)



<그림3-31>바람머리
(출처: 김수정, 『상계서』,p.220)



<그림3-32>77년 노바 커트 스타일
(출처: 김수정, 『상계서』,p.242)



<그림3-33>1970년대 머리모양
(출처: 김수정, 『진게서』, 2005, p.232)

5) 성숙기(1980-1999)

19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미용계가 국내, 외적으로 위치가 확고히 정립된 시기로 1982년 세계미용연맹과(C.I.C : confederation international de la coiffure) 세계미용예술기구(O.A.I : organization artiste international de la coiffure)에 가입하여 36개 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로 많은 미용인들이 국제미용대회 및 견학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용 기술 발달과 각종 미용 기구가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어 헤어스타일을 창조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98년에는 세계미용연맹과 세계미용예술기구가 공동주최하는 50년 역사의 국제 헤어박람회가 “동서양 美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한국미용의 발전을 북돋았다. 이러한 미용인들의 노력과 대중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토탈 패션에서 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외국미용 브랜드의 프랜차이즈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미용실도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하였고 미용업도 전문 기업화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헤어 제품으로 미용 산업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문 미용실에서만 사용되었던 미용 기구를 일반인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가정용 기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가정용 미용 기구의 보급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려는 심리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그러나 퍼머넌트 웨이브와 모발 염색 등 잦은 시술은 모발 손상을 가져왔고, 이를 우려한 여성들의 관심으로 모발 관리 제품 개발이 시작 되었다. 1991년에는 미용학과가 개설되어 미용도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4년제 정규대학에서도 미용전문학과가 개설되었다. 또한 1997년 세계 최초로 한성대학교에서 뷰티예술대학원이 생겼고 이후 학문으로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미용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 잡은 시기로 세계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더 이상 외국의 스타일을 따라가기보다는 동양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창조해 나갔다.

이시기의 유행헤어스타일은 1980년대는 스트레이트 퍼머넌트가 나오게 되어 유행과 상관없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커트나 단발 스타일에도 스트레이트 퍼머넌트를 이용하였고 스트레이트의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선호하게 되자 그 이전에는 스타일에만 관심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머릿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는 헤어무스(mousse)와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스타일링(hair styling)제품이 보급되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대표적인 스타일로 앞머리를 세우는 유행은 세운 머리의 높이와 자존심이 비례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림3-34>에서 보듯이 남성들에게서도 일명 자존심머리가 유행하였다. 컬러 TV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분야에서 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데 있어서도 모발 염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모발 염색은 주로 한색 계열 보다 난색 계열을 선호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난색 계열보다는 한색 계열의 색을 선호하여 블루블랙 등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체 염색에서 부분 염색을 하였으며 모발 탈색제가 나오면서 머리를 탈색시켜 그 이전에는 낼 수 없었던 다양한 색까지 낼 수 있었다. 밝은 컬러에 대한 모발 염색의 편견은 TV 드라마나 가수들의 영향으로 대중화될 수 있었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미적 수준도 향상되어 색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졌고 헤어스타일에 개성을 살리는 것으로 모발 염색은 하나의 예술 분야로 승화되었다. 모발 염색의 대중화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모발 염색을 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화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각종 미용 기구가 들어오면서 1980년대부터 클리퍼와 톤닝가위로 커트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여 가볍게 커트한 뽀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뽀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단발 정도의 길이에 여성스러움을 살린 스타일과 1980년대 후반부터는 뽀 스타일에 롤 스트레이트 펌이나 스트레이트 펌을 하여 톱 부분을 세우거나 세트 감각을 주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는 복고풍의 경향으로 1960년대의 바깥 말음, 안 말음 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형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리고 로맨틱 뽀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스타일은 정수리 부분부터 머리끝 부분까지 볼륨을 주는 스타일이다. 이 로맨틱 뽀 스타일은 펌 웨이브와 커트, 그리고 헤어 제품을 이용한 스타일로 가정에 보급된 미용 기구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만드는데 편리하였다. 이러한 로맨틱 뽀 스타일은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미 있게 20대부터 40대까지 어느 연령층에나 어울려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올빽’형이나, 상고스타일, 하이칼라스타일의 머리모양이 나타났으며, 남. 녀 모두에게 앞머리의 자존심 머리인 ‘닭벼슬’ 머리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림3-34>1980년대 <그림3-35>염색스트레이 <그림3-36>상고머리
자존심머리(출처:이영미, 트(출처:http:cafe.naver.co (출처:naver디지털뉴스아
「전계논문」,2004,p.122) m/beautydodo/196) 카이브17면)



<그림3-37>1990년대
바람머리(출처:이영미,
「상계논문」,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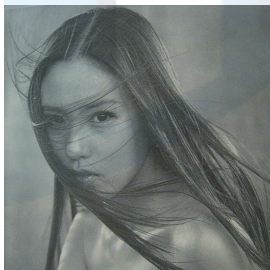


<그림3-38>스포츠머리
(출처:http:cafe.naver.com
/mrc1492/1689)



<그림3-39>레게스타일
(출처:이영미,
「상계논문」,p.124)

1990년대 남성 커트 스타일은 단정하게 자르기보다 끝을 날린 레이어드 커트가 주류를 이루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톡닝가위는 머리카락 끝을 사각으로 만들지만 레이저를 사용한 머리카락 끝은 칼집 끝같이 납작하면서도 뽕족하게 된다. 이 머리는 자유분방하고 불규칙한 느낌으로 헤어스타일과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가볍거나, 밖을 향해 자연스럽게 뻗친 스타일로 헤어제품을 사용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그 밖에 탈색제, 코팅제 등의 염색 제품의 발달로 노랑계 염색을 하고, 앞머리를 길게 내어 스트레이트한 머리가 유행하였고, 개성강한(<그림3-39>참조) 힙합스타일이나, 레옹 머리, (<그림3-37>참조)바람머리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림3-40>스트레이트
(출처:김수정, 『전계서』,
2005,p.320)



<그림3-41>세미롱 단발
(출처:문병옥,
「전계논문」,2006,p.39)



<그림3-42>로맨틱보브
(출처:전선정의,
『미용학과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2004,p.364)



<그림3-43>뽕벼슬머리
(출처:나윤영,
「전개논문」,2001,p.52)



<그림3-44>80년대 펌
(출처:http:cafe.daum.net/jarado/1004)



<그림3-45>90년대 굵은 웨이브(출처:문병옥,
「상계논문」,p.68)



<그림3-46>염색머리
(출처:『미용회보』, 94년
12월호 표지)



<그림3-47>길마름 머리
(출처:『미용회보』, 93년
11월호 표지)



<그림3-48>96년대 뽕침 머리(출처:『미용회보』,
96년 6월호 표지)

국제화시대에 도입하면서 미용 기구 발달로 퍼머넌트 웨이브 종류가 다양해졌고, 단순한 퍼머넌트 웨이브가 아닌 사람들의 모발 관리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퍼머넌트가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개발된 여러 종류의 로드 에 의해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이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웨이브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퍼머넌트 스타일은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스타일과 함께 굵은 퍼머넌트 웨이브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이며 중요한 유행 아이템으로 내추럴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퍼머넌트 웨이브에 헤어 제품을 발라 촉촉한 느낌을 살리기도 하여 여성미와 도시적인 세련미를 느끼게 하였다.



<그림3-49>뽐 스타일



<그림3-50>94년대 스타일

(출처:문병옥, 「전개논문」, 2006, p44) (출처: 『미용회보』, 94년 3월호 표지)

6) 확산기 (2000-2010)

미용 산업의 발달은 미용실의 폭발적 증가와 강남의 개발로 인해 명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지점 오픈 하거나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권 형성과 미용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헤어디자인 부분은 커다란 전환점을 보이게 되었으며 이전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커트 테크닉에 좀 더 자유와 크리에이티브한 혁신적인 헤어커트로 변형되었다.⁷¹⁾

2000년대 머리는 뉴 밀레니엄 이라 하여 사이버틱한 매직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매직은 스트레이트 펌 보다 업그레이드 된 스타일이다. 곱슬머리가 찰랑거리는 머리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매직이다.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발달로 전 세계의 유행은 한 시간에 돌고 있으며, 중. 후 반기에 가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으로 강한 느낌의 짧은 헤어디자인이 나타났다. 쇼트 커트가 유행하다가, 단발머리, 물결웨이브 등,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경제 발전에 따른 경기호조와 소득증대 소비문화 확산은 더욱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투자하고 젊은 층들은 먹는 것보다 외모에 투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미용실의 질적, 양적으로 발전하게 했다. 소비자들은 한 가지 유행에 집착하여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과거의 패션 성향을 지향

71) 이경옥, 「헤어디자인의 발달사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예술평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68

하지 않았다. 그것이 과거 70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이든, 어느 누구도 해 본 적이 없는 ‘괴상한’ 스타일이든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림3-51>2000년대 여성 헤어디자인1

(출처:문병옥, 「전개논문」, 2006, pp.56,82)

현대의 남성 머리모양은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정보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헤어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머리모양도 전통적인 상투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머리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커트는 스트로크 커트(stroke cut), 샹기 커트, 등 동양인의 두상에 맞는 머리모양의 기술이 도입되어 나타났으며,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펌이나, 염색 등 다양한 스타일링제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것은 더욱 발전하여 유니섹스(unisex)로 나타나 여성스런 남성의 단발머리나, 포니테일 등의 머리로도 나타나고 있다.

2001년 가을, 겨울 디자인을 살롱인터프와퓌르 프랑스는 커트와 디자인된 머리모양 속에 비춰진 불균형을 제시해 주면서 똑같은 길이 위에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 낸 볼륨들을 보여주는 '비대칭 2001' 컬렉션을 보여줬다. 헤어스타일은 세바스찬 F/W 컬렉션에선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커트를 선보였고,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05-06 A/W 헤어컬렉션에서는 러시아풍의 스타일 패션의 딱딱함과는 달리 헤어스타일은 부드러움이 강조된 스타일을 선보였다. 차끄데상주는 2005 F/W 컬렉션에서 올 가을, 겨울은 옛 시절로의 회귀, 단발라인을 '카레빈티지(Carr Vintage)라는 이름⁷²⁾으로 고유의 엘레강스 하고 지적인 원래의 형태를 소개했다. 로레알에

72) 김용순, 「현대 헤어스타일의 예술사적 요인에 대한 동조성 연구」, 용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33

서는 강한 인상은 거부하지만 보다 대조되는 것들은 결합하여 기하학적이면서도 따뜻함을 풍기고 금발과 흑발을 혼합한 듯한, 커다란 즐거움을 주기 위해 레드를 가미시켰다.



올팩머리 레이어드컷 모히칸 컷 남성단발웨이브



비대칭컷 포니테일 금발사과머리 내추럴웨이브

<그림3-52>2000년대 남성 헤어디자인

(출처: 『엘르』, 2007년12월, p.284, 『에스콰이어』, 2007년3월, p.92,
<http://blog.naver.com/shiahair>, 『choki girls』, 2010년4월호, p.28,
<http://tab.search.daum.net>, <http://sport.chosun.com>, <http://cafe.daum.net/ok211>,
 『헤어그라피』, 2009년11월, p.97)



쇼트헤어 물결웨이브 머시룸 컷 상투머리



레드 보브 금발쇼트헤어 내추럴웨이브 갈색 사과 머리

<그림3-53>2000년대 여성 헤어디자인2

(출처: <http://v.daum.net/link/7415334>, 『웨딩앤』, 2010년1월 길표지,
<http://cafe.daum.net/easims>, <http://blog.daum.net/puruns>,
 『헤어그라피』, 2009년11월, pp.3,34, 문병옥, 「전계논문」, 2006, p.46,
<http://cafe.daum.net/tribbonskin>)

2.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별 혼례 헤어디자인 변천 분석

혼례문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별로 변화되었고, 그것은 혼례 헤어디자인에도 같은 영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사회변화흐름으로 나누어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00년대는 개화바람으로 헤어디자인에 변화는 왔지만, 혼례 헤어디자인까지는 대중화되지 못하고 전통혼례를 유지하였다. 1910년에서 1920년대까지는 일제강점기로 일본은 한국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단발령을 내렸고, 그것은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부터 1950년대는 6.25전쟁의 전후로 헤어스타일의 발전이 주춤하였고, 남성들은 전쟁으로 군인 머리인 민머리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60년부터 1970년의 헤어디자인은 새마을 운동 등 경제발전에 따라 미용 산업도 더불어 발전하였고, 따라서 다양한 헤어디자인이 나타났다. 또한 1980년부터 1999년까지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사람들의 생활도 윤택하여졌다. 더불어 웨딩드레스부터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까지 가장화려한 시기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지구의환경을 생각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로 등장하였고, 자연에 대한 동경과 회귀본능, 등으로 자연의 색채, 천연소재, 자연스러운 선 등 뷰티에서는 에콜로지⁷³⁾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에 있어서도 1980년대의 인위적인 치장이 아닌 자연스런 헤어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1) 전통혼례 헤어디자인 (1900)

대부분이 전통혼례로 신랑은 상투머리에 사모를 썼고, 신부는 쪽을 지고 족두리를 쓰고 도투락땡기를 늘이었다. 평양의 전통혼례 머리는 남자머리에 커다란 대죽잠을 꽂고 반대편에 용잠을 꽂아 조화를 이루었고, 고이댕

73) 신혜원의 4인, 「의복과 현대사회」, 신정, 2009, p.66

기와 도투락땡기를 드리운 다음 그 위에 꽃으로 장식한 족두리를 얹었다. 평안도 지방 신부의 족두리는 우리나라에서 혼례 때 흔히 사용하는 칠보 족두리와는 그 생김새가 달랐다. 갖가지 색의 작은 꽃들을 만들어 솜족두리 틀 위에 하나하나 꽃아서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었다. 앞 땡기로는 ‘발땡기’를 사용하였는데 검은색 공단을 두 겹으로 하거나 안을 붉은색으로 대기도 하였고, 겉에 색실로 ‘부귀수복희(富貴壽福喜)’와 같은 글자문양이나 새, 꽃, 풀 등을 수놓은 것이었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 발땡기를 드리우는 방법이 타지방과는 달랐다. 발 땡기를 한쪽 앞으로만 드리워서 두 가닥을 모두 오른쪽 앞으로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평안도 지방의 신부차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었다.⁷⁴⁾

당시 한복을 입었던 대부분의 일반 여성은 예전대로 조선조 후기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그대로였다. 부녀자들은 기호를 중심으로 이남에서는 동백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윤이 나게 한 다음 참빗으로 매끄럽게 빗어서 땡아 쪽을 진 쪽진 머리, 서북은 얹은머리를 하였다. 쪽진 머리에서는 쪽이 내려와 저고리 위에 있던 것이 다시 옛날과 같이 1900년대 말에는 머리 뒤로 올라갔으며, 가체의 풍습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쪽진 머리는 오늘날에도 일부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⁷⁵⁾ 이때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쪽진 머리와, 상투머리로 전통혼례를 치렀다.



<그림3-54>평양의 전통혼례
(출처:김수정, 『전계서』, 2005, p.47)



<그림3-55>어머머리
(출처:손미경, 『고전머리따라하기』, 손미경 고전머리연구소, 2007, p.52)

74) 박성실외 1인, 「평양지방의 민속복식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4, pp.171-172

75) 나윤영, 「전계논문」, 2001, p.36



<그림3-56>하란사 팜프도어 머리 <그림3-57>코머리
(출처:문병옥, 「전계논문」, 2006,p.18) (출처:김진숙, 「전계논문」, 2009,p63)

2) 단발령. 남성혼례 헤어디자인 전환기 (1910-1920)

조선에 살았던 서양 여성들은 주로 외국 공관의 외교관 부인들이거나 여성교사들이었는데, 그녀들은 양장 차림에 팜프도어 스타일의 머리를 하였다. 1910년대까지 여학생 간에 트레머리가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옆가리마를 타서 갈라 빗은 후 머리 뒤에다 넓적하게 틀어 붙이는 식으로, 넓적하고 클수록 보기 좋다고 하여 속에 머리심을 넣고 겉에만 머리를 감싸 크게 틀었다. 점차 가채 분량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자 가운데 가르마에 땀기를 드리우는 서민 헤어스타일이 나타났고, 뒤로 간편하게 하나로 묶는 헤어스타일도 나왔다. 또 다른 헤어스타일로 둘레 머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머리를 뒤에서 한 가닥으로 굵게 따서 둘레에 터번 모양으로 둘러 머리 위에 틀어 엮고 핀을 꽂은 머리로서, 조선시대 어여머리와 유사하나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192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전통혼례가 치러져서 여성은 쪽머리나, 트레머리, 둘레 머리를 하였다. 그 외에 간혹 신식교육을 접한 여성들은 팜프도어 등의 머리로 한복드레스를 입고 쓰개치마 형 베일을 쓰고 신식혼례를 하였다. 신식 머리는 S자 모양으로 틀어 머리 뒤에 종으로 붙이는 S자머리와 8자머리, 양쪽 귀를 가려 빗는 머리 도넛 모양으로 빗어 붙이는 말뚝 머리, 도루마끼머리 등이 유행하였다.⁷⁶⁾ 일본의 단발령으로 많은 남성들은 상투를 잘라야했고, 한국 남

76) 나윤영, 「전계논문」, 2001, pp.38-39

성의 머리모양이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로 변화되는 전환점이었다. 단발령이 실시되어 개화와 인사들과 관료는 단발의 하이칼라머리를 하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단발령을 강하게 거부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지하였다.⁷⁷⁾



<그림3-58>영왕비의 혼례머리(1920)
(출처:고부자, 『우리생활100년』, 현암사, 2001, p.91)



<그림3-59>전통 혼례머리 <그림3-60>왼쪽아래 팜프도어, 쪽머리
(출처:정경희, 「전계논문」, 2007, p.80) (출처:장미여, 「전계논문」, 2008, p.15)

3) 6.25 전후 혼례 헤어디자인 (1930-1950)

1930년경부터 팜프도어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학생들은 머리를 길게 땋아 땃기를 드리는 스타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올림머리가 유행하였는데 머리 정수리 부분에 머리심을 넣어 꼭대기와 뒤통수를 나오게 하여 그 밑에 다 머리를 크지 않게 해서 살짝 부쳤다. 간혹 여기에 핀컬(pin curl)⁷⁸⁾을

77) 이영미, 「전계논문」, 2004, p.77

하였으나 흔하지는 않았고, 자주 감아서 때가 앓을 새 없는 파시시한 스타일이 당시의 특징이었다. 1920년부터 시작되었던 단발은 계속되어, 서구식 혼례를 행할 때 단발머리를 하고 혼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7년경부터는 젊은 여성들이 긴 머리를 자르고 펴기 시작하였는데, 광복 이후 젊은 여성들은 대개 어깨에 못 미치는 길이의 단발에 펴기를 하였고, 옆가리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8년부터 1949년경에는 머리가 짧아지고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세미 업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다양해졌는데 남성의 혼례헤어는 전쟁에 의해서 민머리가 많이 나타났고 여성은 퍼머넌트의 유행으로 서구식 혼례에서 퍼머넌트 스타일의 헤어가 많이 나타났다.



<그림3-61>1930년대 이우왕자혼례,
(하이칼라머리, 스킵웨이브)
(출처:http:blog.naver.com/fadette05)



<그림3-62>1930년대 의친왕 이곤의
전통혼례(출처:이민정, 「전개논문」,20
08,p.64)



<그림3-63>1940년대 혼례헤어디자인
(출처:이민정, 「상개논문」,p.64, 박정숙, 「전개논문」,2004,p.47)

78) 핀컬(pin curl): 조각 컬, 넓은 의미로 메이폴컬(maypoly curl)이라는 말로, 부드럽게 빚은 모발 줄기의 끝을 컬의 안쪽 위에 대고 원형으로 감는 것으로, 전체적인 웨이브의 흐름보다는 부분적으로 나선형 컬이 필요할 때에 이용.



<그림3-64>1942년 남성 민머리, 1959년 남성 올빽 머리
(출처:이남옥, 「전개논문」,2006,p.55, 박정숙, 「상개논문」,p.53)

4) 다양한 혼례 헤어디자인 (1960-1970)

1960년대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기술 또한 더불어 발전하여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 60년 초에는 앞머리 부위와 귀 양옆에 높이를 준 부푼 양감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앞의 높이, 양옆의 부풀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듀오라인(duo lin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듀오라인은 전두부⁷⁹⁾ 부위를 높게 올린 멋스러운 헤어 라인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스타일이었다. 백조 라인의 스타일은 미용 용어로는 일명 크라운 봄베이지(crown bombege)스타일이라 하였는데, 이는 두정부(頭頂部)⁸⁰⁾에 볼륨(volume)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모양에서 나온 말이었다. 갖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로 정수리를 부풀렸고 스트레이트한 업스타일(straight up style)도 유행하였다. 1963년부터 1964년에는 밥 스타일(bob style)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1966년에는 남자처럼 아주 짧은 쇼트 헤어스타일이 많아 여성들의 혼례 헤어스타일이 올린머리 뿐만 아니라 단발, 쇼트 헤어, 듀오라인 등의 많은 스타일이 나타났다.

1970년대는 사회에 반항하는 장발이 유행하여 혼례 헤어스타일로 남성들의 머리는 장발이 많았고, 장발뿐만 아니라 올빽, 하이칼라, 상고머리 등의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블로우 드라이로 바람결스타일의 자연스

79) 전두부(前頭部): 톱(top)이라고도 하며, 머리의 꼭대기 앞부분

80) 두정부: 크라운(crown)이라고도 하며, 머리의 최 정상부, 왕관의 주위 부분

런 머리가 유행하여 혼례 헤어스타일에서도 바람결머리나, 퍼머넌트의 발
달로 자연스런 웨이브 형태의 혼례 헤어디자인이 유행하였다.



<그림3-65>양감을 부푼 머리
(출처:김수정, 『상계서』,2005,p.242)



<그림3-66>1960년대 백조머리
(출처:나윤영, 「전계논문」,2001,p.61)



1960년 엄앵란 혼례

1960년 혼례

1965년 고은아 혼례



1966년 강부자 혼례

1967년 남궁현 혼례

1968년 태현실 혼례

<그림3-67>1960년대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http://blog.naver.com/4ontheborder>, 이민정, 「전계논문」,2008,p.66,
<http://blog.naver.com/mylucenlee>, <http://cafe.naver.com/carmy/290>)



<그림3-68>1970년대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http:image.search.daum.net, 최진은, 「전개논문」,2006,p.21,
http:cafe.daum.net, 본인소장)

5) 가장 화려한 혼례 헤어디자인 (1980-1999)

1980년대 초에는 펑크 헤어(punk hair) 또는 디스코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단정하고 딱딱하게 고정된 헤어스타일에서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듯 한 소바쥬(sauvage)⁸¹⁾형의 자연스런 펴은 부드러운 질감의 머리에서 신선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1984년부터는 가위와 클리퍼의 부조화 커트 디자인이 유행함에 따라 헤어 디자인에 클리퍼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뒷목 쪽에는 클리퍼로 긴 솜털이나 머릿결을 거슬러 밀어 올리고 앞쪽에는 자연스런 펴의 웨이브로 물결치는 듯 한 웨이브를 주는 2단층 뽕(상고 단발형)스타일을 하였다. 유행에 민감한 여성은 단발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였는데, 손질하기 쉽고 기능적인 중단발 기장의 뽕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 80년대 당시 대표적인 스타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일명 자존심머리가 유행하였고, 혼

81) 소바쥬: 안켄푸트 록(unkempt)의 일종으로, 덜수록 하고 손질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스타일링 하지 않고 야성미를 남긴 머리.

레 스타일에 있어서 올린머리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이 과장된 듯 화려한 시기이다. 남성들의 혼례 헤어스타일은 유행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모두 나타나며 주로 젤을 이용한 상고머리나 올빡 형 머리 스타일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림3-69>1980년대 화려한 혼례헤어디자인
(출처:최진은, 「전계논문」, 2006,p.23, <http://kchju659.woorweb.net>)



1990년 혼례

1993년

1992년 혼례

1994년 문석화 혼례

<그림3-70>1990년대 중반까지 화려한 혼례헤어디자인
(출처:최진은, 「상계논문」, p.25, 박현주, 「전계논문」, 2009,p.46, 본인소장 자료,
뉴스아카이브경향신문5월17일자)

6) 내추럴 혼례 헤어디자인 (2000-2010)

긴 머리는 자연 그대로의 모발 상태를 살리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개발된 특수 로드⁸²⁾에 의해서 뉴 셋팅 펌⁸²⁾이나, 세미 펌 웨이브가 유행 하였다. 이는 셋팅 시간이 기존의 스타일링 시간보다 짧으면서 혼자서도 간단하게 손질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앞이마

82) 셋팅 펌: 컬과 웨이브 보다는 지속력이 강한 최신 파마 기법

를 시원스럽게 내놓고 굽은 웨이브로 여성미를 강조한 스타일이 펌 웨이브 부분에서 주류를 이루었고 여러 가지 헤어핀이나 헤어밴드, 고무줄을 이용하여 느슨하게 묶어 주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함이 물씬 풍기는 로맨틱한 웨이브는 가장 내추럴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이다. 2006년도에 들어와 복고풍의 헤어스타일은 196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볼륨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 로맨틱 웨이브로 앞머리 비대칭 컷트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는 어시메트릭의 비대칭 터치로 모던함을 강조하고 고전적 미를 형상화한 스타일로 포니테일과 브레이드로 여성스러우면서 럭셔리한 페미닉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2007년의 자연주의 영향은 자연스러운 웨이브의 유행을 맞고 60년 80년대의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여성의 혼례 헤어스타일은 꾸준하게 내추럴한 업스타일로 사과머리나 물결웨이브의 업스타일, 우아한 스타일의 반머리 브레이드, 등 얼굴형에 맞게 보완하여 다양한 스타일이 연출되고 있다. 남성의 혼례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는 스타일로 유행하는 스타일이 나타난다. 주로 자연스런 웨이브나, 레옹 머리, 쇼트썸머 모히칸, 상고머리 등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요원혼례 드라마속 김태희 2003년 혼례헤어

2006년 류진 혼례 2008년 이루마 혼례 2010년 혼례헤어

<그림3-71>2000년 자연스런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 <http://babyuchunluv.blogme>, <http://blog.naver.com/numantia77>,
박정숙, 「전계논문」, 2004, p.61, 『마이웨딩』, 2010년 12월, p.139,
『더웨딩』, 2008년 1, 2월, p.32, 『오프웨딩』, 2009년 8월, p.16)

[표3-2] 개화기시대 1900년 머리모양

1900 연대	유행머리모양	혼례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상투머리 땡은 머리	 
	 1900년대 할아버지와 손자 (출처: http://blog.naver.com/ubotem)	
여 성 머 리 모 양	  어머머리 코머리	 
	 쪽머리	

	 	
	귀가리 머리 팜프도어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표3-3] 일제강점기시대 머리모양

1910 - 1920 연대	유행 머리모양	혼례 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민머리 학생머리	
	 개화기머리모양	
여 성 머 리 모 양	 쪽머리, 팜프도어	

	 팜프도어 단발머리	
--	--	--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표3-4] 6.25 이전이후시대 머리모양

1930 - 1950 연대	유행 머리모양	혼례 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민머리, 하이칼라	
		

여 성 머 리 모 양	단발 퍼머넌트머리 남성 하이칼라머리와 여성 퍼머넌트머리	
--	--	---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표3-5] 산업화시대 머리모양

1960 - 1970	유행 머리모양	혼례 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여 성 머 리 모 양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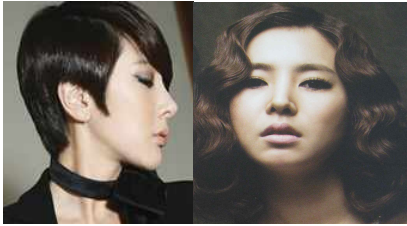
[표3-6] 디지털·정보화시대 머리모양

1980 - 1990	유행 머리모양	혼례 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바람머리, 자존심머리	
	 스포츠머리 상고머리	

	 염색스트레이트	
여 성 머 리 모 양	 닭벼슬 머리=자존심머리, 바람머리	  
	 컬러링, 스트레이트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표3-7] 글로벌시대 머리모양

2000 - 2010	유행 머리모양	혼례 머리모양
남 성 머 리 모 양	 울빱 머리 모히칸 커트	
	 내추럴웨이브 포니테일	
여 성 머 리 모 양	 컬러, 샹기 커트	
	 쇼트헤어 물결웨이브	

(출처: 연구자가 논문 요약정리 한 것임)

제 4 장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의 분석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제안

제 1 절 현대 혼례 절차의 기준

현대의 결혼은 전통적인 혼례 절차와 유사한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전통혼례에서 의혼과 납채에 해당하는 결혼식 예비절차가 현대에서는 양가의 직계가족 및 조부모를 포함하여 왕래가 잦은 친족들이 모여 양가 상견례의 의미를 가지는 약혼식이다.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식 날짜: 양쪽이 협의하여 당사자 및 양가의 직업, 예식장 사정, 손님들이 참석하기 좋은 날, 혼수 준비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정한다. 요즘에는 예식장 형편과 참석자를 고려하여 주중이나 야간에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 예식 장소: 신부대기 대청마루나 앞마당에서 거행됐던 결혼식이 이제는 예식장, 교회, 성당, 법당, 등에서 행해지고 그 외에 회관, 강당, 야외, 호텔 등을 이용해서 거행된다. 예식장 선정 문제는 양가 집안이 서로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3) 주례 위촉: 주례는 당사자가 평소부터 잘 알고 존경하던 분으로 가정에 자식이 있고, 가정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신다.

4) 청첩장: 결혼 사실을 친지와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서식으로 보내지 않으면 섭섭해 할 사람과 정말로 축복해 줄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5) 사주 및 함: 현대 결혼에서는 약혼식에 사주를 보내기도 하고, 별도로 결혼식 전날 또는 일주일 전 저녁에 사주와 함을 보내기도 한다. 함 속에는 채단은 물론 알맞은 예물을 넣는데 그 형식은 전통혼례의 납폐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4-1>폐백 드리는 모습



<그림4-2>폐백사진

(출처:박정숙, 「전계논문」, 2004, p.57) (출처: <http://blog.naver.com/hhyunsun>)

6) 결혼식 예식장에서의 순서: 개식, 신랑입장, 신부입장, 신랑 신부 맞절, 신랑신부 서약, 성혼선언, 혼인서약, 주례사,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축하, 신랑신부 행진, 폐식, 사진촬영 순으로 이루어진다. 기념 촬영이 끝난 후 폐백실에서 폐백을 드린 후 피로연 장소에 가서 친지, 친척 등 하객에게 인사를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남으로써 현대식 결혼의식은 끝난다. 결혼식을 마치면 일반적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 신혼여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결혼식을 끝낸 후 그것을 기념하여 여행을 가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신혼여행은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공동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다.⁸³⁾

현대는 개성 있는 신세대들 사이에서 독특한 형태의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에서 벗어난 예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83) 신치균, 「전계논문」, 2007, p.17

제 2 절 현대 혼례문화의 문제점 분석

현대 혼례식은 산업사회로 생활양식의 변화와 상업적인 요구가 일치하여 생성된 서양식 혼례식이다.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용예식장이나 호텔 예식장 등 하객의 접대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요식업 위주의 부속 예식장은 그 사회의 시사적인 부분과 경제수준에 관련되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대의 혼례는 시간적으로 대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서둘러서 끝내는 경향이다. 또한 예식시작 전의 모습은 예식 홀 입구 앞에 신랑과 양가 부모님이 일렬로 서서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로비에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눈다. 로비의 양쪽으로는 축의금 접수대가 놓여 있어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축의금은 일종의 품앗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론 식권을 나눠주어 혼주와 하객간의 직접적 교환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예식장에서 혼인을 시작할 때부터 폐백이 끝날 때 까지 짜여진 순서대로 형식에 그치는 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혼례문화로 본 예식장 건축에 관한연구」 중앙대석사 신치균의 주장에 의하면 “혼인의 올바른 의미인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남녀평등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서약에 있어서도 혼인 당사자는 빠지고 주례자가 서약을 하는 등 혼례의 주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있으며, 현구고례(見舅姑禮)⁸⁴⁾란 낱말조차도 인식되지 못한 채 폐백⁸⁵⁾이란 말을 대신 쓰기도 하고 폐백실이란 낱말의 공식화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현대 혼례문화를 비판하고 있다.

혼인의 신성한 의미보다는 양가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사진 찍기의 행

84) 현구고례: 며느리가 시집에 와서 시부모에게 첫인사를 올리는 예로써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버섯, 개암, 포, 건육, 대추, 밤) 등을 상차림으로 하여 시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다산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禮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뜻이 중요한 禮이나 오늘날에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에 현혹되어 많은 양의 밤, 대추를 비싸게 구입하여 멋지게 상차림 하는 것으로 그 禮를 다한다고 하니 현구고례의 본 취지를 알고 있다면 옛 어른들이 경계했던 무지한 행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85) 폐백: 폐백은 색 비단을 사용하고 빈부에 따라 분수에 맞게 하였으며 비단 외에 비녀, 팔지, 양술, 과일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婦見舅姑禮(며느리가 시부모께 선물을 올리며 첫 인사 드리는 예절)에서 밤, 대추 등을 폐백이라 하던 것을 세속에서는 부현구고례를 폐백으로 칭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사며, 폐백에서의 절값 등은 부모나 가족의 공경함은 뒷전인 채 혼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잃은 행사로 인식되어졌다.

현대에 와서 혼례의 의미는 서구의 근대적 혼인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혼례절차는 다양해진 개인의 생활양식, 종교의 영향, 신식과 전통 혼례의 혼재 등이 매우 각양각색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기에는 전통혼례를 따르고자 할지라도 실제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나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전통을 고수해 보려는 뜻은 있지만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현대 혼례절차가 자유연애 혼에 의한 배우자 선택과정과 혼인 당사자의 결정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는 양가의 만남, 혹은 약혼의 과정, 이후 함 보내기, 혼인식, 폐백, 신혼여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 혼례식 90%이상이 서구식으로 치러지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혼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때문에 예식장이 도시 생활 시설로서 도시 곳곳에 자리 잡았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의 예식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시간에 쫓기는 결혼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 3 절 혼례식형태의 다양화와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성

현대 드러나는 예식진행의 특징은 기성세대의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결혼식 문화를 탈피하여 신세대 의식구조 변화에 따른 차별화 된 결혼식을 지향하며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인 예식진행에서 이벤트성 예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기존의 복고적 예식을 고집하던 예식장에서도 이벤트성 연출을 하고 있다. 특히 호텔에서 예식을 치루는 일부 부유층의 이벤트 선호가 결국 예식장까지 확대되었다. 이벤트업체들의 예식관련 업무확장으로 인한 이벤트는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업체들의 의견은 지금의 이벤트는 향후 세월이 지난 후 되돌아보았을 때 구식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예식으로 타 예식과는 차별화 된 예식을 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더불어 혼례의식 자체보다는 연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예식 형태의 변화와 수요의 경제적 활용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첫째, 평일예식의 증가 추세이다. 예전에는 결혼식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평일 예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인 예식 문화에 식상한 젊은 커플이 평일 예식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말, 특히 토요일은 미용실이나 교통, 식당 모두가 혼잡하고, 예식이 많기 때문에 하객들이 여기저기 식당으로 뛰어 다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평일에 예식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당의 상황이나 교통이 주말에 비해 한가하기 때문에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예식을 준비할 수 있다. 식당을 예약할 때에도 주말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몇몇 식당에서는 평일 예식의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도 한다.

둘째, 저녁예식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근래 저녁에 예식을 하는 경우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통 호텔이나 공항 터미널, LG 강남 타워, 63CITY 등 호텔 급 대규모 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성당이나 교회 일반 회관들은 조명이 약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예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런 곳에서는 저녁예식이 없다. 저녁 예식은 주로 5시, 6시 경에 이루어지며 특색 있는 이벤트나 의미 있는 피로연에 중점을 두는 커플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저녁 예식도 평일과 주말로 나뉘는데, 평일에는 금요일,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예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저녁 예식에는 주로 본 예식 이후의 스케줄이 없으므로 차분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에서 예식을 치르고 피로연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피로연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므로 세련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샴페인이나 와인 등을 마시기에도 낮 예식보다 부담이 덜 하다. 그리고 예식이 모두 끝난 뒤 신랑신부 친구들끼리의 뒤풀이를 하기에 시간적으로 적당하다.



<그림4-3>은지원 하와이 야외결혼식
(출처: http://blog.naver.com/ten_months/140105902718)

옛 부터 우리의 전통혼례는 저녁에 치렀다. 남녀가 몸을 합치는 것이 혼인임으로 양과 음이 교차하는 서로의 평등한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해 뜰 때와 해질 때가 있지만 이중에 첫날밤을 치르기에 가까운 저녁때를 잡아 혼인을 치른 것이다.

셋째, 전문 웨딩플래너의 등장으로 고급화된 야외예식의 진행이다. 이들은 고급 주택이나 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 개월간 준비를 하며, 계절, 날씨에도 세밀하게 계획을 한다. 그리고 실내에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없는 조명대신 다른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의 예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다.⁸⁶⁾ 이처럼 예식의 형식은 다양하게 발전되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저 성장기에 돌입하면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자기희생’이 점차적으로 자기실현이나 개인적 만족을 구하는 ‘자기충족’으로 변하고 있음을 양켈로비치⁸⁷⁾는 밝혀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상품구매의 이유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다양해졌음을 설명했다. 이것은 예식 상품의 선호로 다양해져 자기충족의 하나로 고급화된 예식의 장소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특 1급 호텔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웨딩시장 트렌드를

86) 신치균, 「전계논문」, 2007, pp.36-37

87) DANIEL Yankelovich(1924-)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을 만든 양켈로비치

선도하는 대표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특 1급 호텔 예식을 이용하는 고객은 우리나라 톱클래스의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하여 정. 재계 고위직의 소득수준 상위 10%내의 고급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그들만의 차별화된 예식을 위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웨딩환경을 연출하기에 이용가격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상당히 고가의 예식비용이 소요된다. 웨딩홀 장식, 잔치음식, 특별한 이벤트, 부대적인 혜택 충분한 예식시간 고품격의 분위기 연출과 물적. 인적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마케팅 전략은 새로운 예식문화를 선도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호텔 예식을 예식 홀(대연회장) 안에서 예식과 연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예식 스타일을 창조해 내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금의 우리나라 예식 형태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과 서양의 결혼식 스타일과 사뭇 다른 형태이다. 일본의 신식 결혼식의 경우는 결혼식장과 연회장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채플웨딩이 일반적인 스타일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호텔 결혼식은 예식과 연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초대하는 하객 수 차이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소수의 지인만 초대하여 초대장을 소지한 사람만 예식장 입장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품앗이 문화의 영향이 남아 있어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인에게 청첩장을 보낸다. 많은 하객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평균 하객 수가 백단 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많은 하객들 앞에서 본인들의 결혼식을 축하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과시욕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인원이 수용 될 수 있는 대연회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 속에서 연회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웨딩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하우스 웨딩을 들 수 있다. 레스토랑 등에서 진행하던 소규모 예식이 진화하여 이제는 소규모 예식전문 하우스 웨딩홀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하우스 웨딩홀은 베일리 하우스를 들 수 있는데 이곳은 일본식 채플웨딩 스타일을 표방하여 예식 홀과 연회장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림4-4>하우스웨딩 <그림4-5>선, 정혜영 파티결혼
(출처:http:parkbyw.com) (출처:http:blog.naver.com/weddinglee1)

종교예식을 가미한 경건한 느낌의 웨딩 진행과 럭셔리 하면서 엄숙한 느낌의 홀 데코레이션과 스타일로 신세대 신랑 신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하우스 웨딩의 등장은 웨딩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우스 웨딩 등장의 첫 번째 이유로 하객 수 감소에 따른 대형 연회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식이 늘면서 소규모 예식을 치르기 위한 장소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천편일률적인 예식에 대한 식상함을 탈피하여 스타일리쉬한 자기만의 웨딩 스타일을 추구하는 신세대 예비신랑, 신부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우스 웨딩은 레스토랑이나 주택에서도 얼마든지 연출에 의해서 예식을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은 수의 하우스 웨딩 홀⁸⁸⁾이 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

1. 혼례식 형태의 다양화 요인

첫째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문화적 욕구가 상승되고 파티문화가 생겨났다. 우리에게 익숙한 ‘파티’란 기껏해야 ‘생일파티’에 불과했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티가 등장했고 새로운 유흥문화

88) 김홍우, 「예비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웨딩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석사 학위논문, 2010, pp.22-23

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문화 욕구가 상승하고 고급사교, 문화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서 새 트렌드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파티문화를 상류층의 사치문화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댄스파티, 캣테일파티, 해변선상 파티 등 다양한 목적의 사교와 여흥을 위한 파티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로 외국 유학의 증가는 대학생들의 어학연수나 유학이 빈번해지면서 이들이 외국에서 경험했던 파티문화를 한국에 들어와서 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음주문화에 식상한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적당히 즐기는 파티 문화를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로 경제 성장과 주 5일 근무에 따른 시간적 여유는 색다른 여가문화로서 파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주 5일제근무 실시로 여행이나 레포츠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넷째로 세대가 변하면서 특이한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다. 만난 지 100일, 200일, 1000일째 되는 날 등 온갖 ‘날’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기기 좋아하는 것 또한 요즘 10-20대 젊은 층들의 성향이다. 평범하지 않은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을 원하는 젊은 층의 욕구는 이벤트와 축제 문화를 탄생시켰다. 주부들의 경우 특히 기념일을 챙기기 바쁘다.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파티, 자녀들의 생일파티 등 일 년에 몇 번은 음식장만에서부터 집 꾸미기까지 ‘행사’를 준비한다. 그런 날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요즘 미시족, 젊은 부부들의 특징이다. 신흥 파티문화 형성에는 20대 미혼 직장인들의 호응도 빼놓을 수 없는 데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이성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사교와 여흥을 위해 파티에 참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문화적 욕구 상승, 외국유학의 증가, 주 5일 근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 등이 맞물려 파티는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긴밀함을 형성하는 이벤트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⁸⁹⁾

2.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성

헤어디자인의 기본적인 의미는 ‘계획’ 또는 ‘설계’로서 인간생활의 목적에 맞는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헤어디자인의 중요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미(美)와 용(容)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능적 형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그것을 최대 만족시키는 형식을 추구하면서 기능에 충실했을 때의 형태가 가장 아름답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⁹⁰⁾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써 이미지형성에 가장 큰 요소이다.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모발에 일련의 디자인 과정을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미지이다. 따라서 혼례 헤어디자인은 고객의 골격이나 체형 등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이미지로 창조하는 헤어디자인의 한 형태이며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미와 실용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창작해 내는 작품이다. 또한 고정된 조형에 가발이나 피스 등으로 악센트를 표현함으로써 디자인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도 하며 필요하다면 액세서리의 사용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종합 헤어 디자인이라 해도 무방하겠다.⁹¹⁾

1) 여성의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성

업스타일은 긴 두발을 매거나 묶는 수단에 따라 머리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동서양간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머리를 높이 빗어 올려 위에서 마무리고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의 머리양식 또는 여자의 머리 꾸밈새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올린 머리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로는 Up

89) 여해란, 「하우스예술파티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20-21

90) 손복심,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6

91) 김송희, 「얼굴형과 웨딩 업스타일에 따른 신부의 인상형성 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8-9

- Do라고 하며 매만져 올리는 머리형이다. 업스타일은 블로우 드라이, 전기 세트, 아이론 등에 의해 웨이브를 만들거나 물리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밴드와 핀으로 두상의 어느 부분에서 형(Form)을 이룰 수 있도록 고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기능 대회는 물론 모든 대회에서의 업스타일 작품은 묶거나, 꼬거나, 땀거나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작품화한다.⁹²⁾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업스타일은 올림머리를 일컫는데, 요즘은 반올림 머리도 포함되어진다. 21세기에 미용은 스타일을 연출하는 디자인 중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업스타일은 강조형의 위치, 즉 형태가 형성되는 두상의 위치 또는 헤어피스와 가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좌, 우 균형이 맞게 연출되는 대칭적인 스타일과 비대칭적인 스타일에 따라 분위기와 이미지가 틀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업스타일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연출되어지는 헤어스타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예술적인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스타일이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인 결혼 예식에서 신부의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신부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위기로는 조민희의 설문연구결과 우아함이63.7%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순함20.3%, 귀엽게11.3%, 섹시하게 4.7%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⁹³⁾

업스타일에 이용되는 기본 기법은 크게 꼬기(Twist), 매듭(Knot), 겹치기(Overlaps), 땀기(Braids), 고리(Loops), 말기(Rolls), 시농(Chign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4-6>업스타일의 기본 디자인 기법

(출처:이복자의 『Upstyle step by step』, 미디어뷰, 2007, p.14)

92) 한성진, 「현대 퓨전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3

93) 조민희, 「웨딩 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 한남대학교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3

(1) 현대 여성 혼례 헤어디자인의 종류

현대 여성 혼례 헤어디자인의 대표적인 종류 중 시농 (Chignon) 업스타일을 들 수 있다. 시농 (Chignon)은 프랑스어로 속발(束髮), 쪽이라고 하는 의미로 후두부에 작은 쪽으로 만든 스타일로서 옛 부터 볼 수 있는 여성의 전통적인 머리형의 하나이다. 쪽이라 하기에는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쪽 모양으로 둥글게 한 것부터 롤이나 가늘고 단단한 여러 가닥으로 땀은 시농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영어로는 ‘여성 뒷머리의 번(Bun) 모양’이다. 상투라는 뜻으로 목덜미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시니온’으로 상투처럼 한곳에 묶어 올린 머리형의 종류를 지칭하며 두발을 묶는 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농 기법은 골든 포인트 묶기, 백 포인트와 톱 포인트의 조합, 톱 포인트 묶기 등⁹⁴⁾ 다양하게 활용된다. 대부분 목의 뒷부분 위에 머리다발을 모아 묶어 매듭이나 핀으로 꽂아서 만드는 형태이다.



<그림4-7>시농 업스타일

(출처: http://cafe.daum.net/tin_amaakeuphair, 강재순,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분석」, 용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8)

브레이드 (Braid) 업스타일은 땀은 머리의 종류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땀기는 세 가닥이나 그 이상의 머리가닥을 교차하거나 엮는 것으로 구성되어진다. 사용되는 머리가닥과 숫자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크기는 가닥의

94) 이복자외, 『Upstyle step by step』, 미디어뷰, 2007, p.15

크기와 섹션에 따라 나누기의 패턴은 다양하나 기본 땃기 기법은 같다. 땃기는 다양한 디자인 연출을 위하여 천체축의 어느 선을 따라서든지 놓여질 수 있다. 두상의 모양에 밀착된 땃기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똑바로 든 상태에서 땃기를 시작하고 머리가 들리지 않도록 손가락을 두상에 밀착시키면서 시술한다. 업스타일에서 땃기는 발랄하거나 어려보이는 효과를 내며, 세밀한 정교함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림4-8>에서 보듯이 겹치기 업스타일은 두 개의 머리가닥을 서로 반대쪽 가닥 위로 겹쳐서 십자 겹침 효과를 얻는 것이다. 가닥의 크기나 섹션의 크기는 완성된 결과의 십자형 패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 각 섹션을 겹치도록 하기 위해 손을 두상의 상의 곡면에 90도로 세운다. 늘어지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크라운의 머리를 당겨 올린다. 시술 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⁹⁵⁾



<그림4-8>땃기&겹치기업스타일
(출처:손복심, 「진계논문」, 2007, p.15, 강재순, 「진계논문」, 2007, p.40)

<그림4-9>의 꼬기(twists) 업스타일은 빗줄처럼 감기는 효과를 주기 위한 가닥, 두 가닥 혹은 세 가닥의 머리가 말려 있어 회전한 것이다. 머리가닥이 크기와 이에 적용되는 텐션은 꼬기의 모양을 결정한다. 크기와 텐션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또는 느슨한 것으로부터 타이트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스타일은 크고 느슨하게 꼬여진 아방가르드 형식을 나타내 준다. 꼬기의 위치와 머리가닥의 크기와 텐션의 양을 변화시켜 무제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질감이 잘 나타난 머리에 가장자리 머리를 그대로 두고 꼬기를 하면 부드럽고 낭만적인 느낌이 살아난다. 매듭(Knot)기법의 업스타일은 머리카락 하나 혹은 여러 개를 함께 엮거나 묶어주는 것으

95) 강재순,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39-40

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매듭은 시선을 가운데로 이끌고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을 만들어 준다. 한 가닥의 모발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원 안에 모발 끝을 넣고 잡아 당겨 매듭을 짓는 기법이다. 한 가닥으로 시술하든 또는 헤어 전체의 디자인을 구성하든 매듭은 디자인 내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꼬기 업스타일

말기 업스타일

<그림4-9>꼬기, 말기 업스타일

(출처:이은숙, 『No Blesse up-style』, 명문미용전문학교, 2003, p186,
강재순, 「전계논문」, 2007, p.52)

고리(Loop)기법의 업스타일은 머리카락을 접거나 구부리거나 동그랗게 하여 곡선 모양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머리 가닥을 말기 전에 손가락의 위치로 크기를 결정하며 디자인에 있어서 고리의 숫자가 증가하면 복잡한 디자인이 형성된다. 고리의 구성은 시간제한 없이 디자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제안해 주고 각 고리의 위치, 크기의 다변성은 디자이너가 다양한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말기(Roll)기법(<그림4-9>참조)의 업스타일은 머리카락 자체 내에서 싸여지고 감겨지는 것으로 수직축을 따라 네이프 포인트(목점)에서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가며 마는 수직 롤과 헤어 디자인의 평행한 곡선을 따라 마는 윤곽 롤이 있다. 롤 기법의 경우 머리가닥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뿔형⁹⁶⁾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에서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신체에 맞는 여성 혼례 헤어디자인

96) 한성진, 「전계논문」, 2010, p.16

얼굴의 형태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다. 얼굴의 형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모발을 모두 얼굴 뒤로 쓸어 넘긴 다음 거울에 비추어 얼굴의 형태를 그려보는 방법이다. 가장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형태는 달걀형이므로 헤어스타일을 디자인 할 때는 달걀형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란형의 얼굴은 세로가 가로의 약1.5배이고 이마가 턱보다 약간 넓다.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서 대부분의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둥근형의 얼굴은 동양인에게 많이 볼 수 있으며, 얼굴의 골격이 둥글고, 넓이와 길이가 거의 동일하다. 볼, 턱, 등의 선이 둥글며 전체적으로 통통한 인상으로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얼굴형에는 넓이보다는 볼륨을 높여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특히 둥근형의 헤어스타일에는 센터 파트는 피하고 사이드 파트(6:4 또는 7:3)로 하는 것이 좋다.⁹⁷⁾ 삼각형의 얼굴은 혼하지 않으며 턱의 라인이 무거워 보이는 형이다. 이마보다 턱이 넓으며 볼 아래의 살이 많은 형이다. 적합한 스타일은 역삼각형의 머리형을 만들면 효과적이다. 사각형의 얼굴은 각진 얼굴형이라 광대뼈와 턱의 부분이 각을 가지고 있어서 개성이 강한 얼굴로 보이는 단점이 있다. 적합한 스타일은 부드러움을 주기 위하여 얼굴에 쉼이 흘러내리거나 약간의 비대칭적인 스타일이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해준다. 다이아몬드형의 얼굴은 이마와 턱의 부분이 뾰족하여 예리하면서 지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타입은 얼굴에 살이 없기 때문에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인다. 적합한 형태는 이마와 턱 부분을 부드럽게 부풀려 주는 스타일이 좋으며, 이때 옆과 높이를 더하는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역삼각형의 얼굴은 광대뼈 사이의 넓이가 얼굴 길이에 비해 너무 넓은 형으로 얼굴에 균형을 주기 위해서는 삼각형 헤어스타일이 좋다. 옆 부분은 줄이고 턱 부위에는 볼륨을 주는 스타일이다. 이러한 타입은 턱을 강조하거나, 얼굴을 드러내거나, 높이를 주는 스타일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 얼굴형의 경우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위쪽의 볼륨을 줄이거나, 긴 머리스타일은 피한다. 길게 보이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둥글게 보이

97) 강영숙, 『웨딩헤어디자인』, 훈민사, 2004. p.12

도록 볼 양쪽, 사이드 부분에 포인트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의 형태에 따라서도 헤어 디자인을 고려하여 스타일을 만들면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 먼저 목이 긴 경우는 스트레이트 스타일보다는 굽은 웨이브나 꺾이 있는 스타일이 우아하게 보인다. 목 부위를 감싸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유도하며, 목이 드러나 보이는 헤어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목 주위의 액세서리는 긴 것보다는 둥근 것이 좋다.



<그림4-10>여성의 다양한 현대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 『월간웨딩21』, 2010년11월호, pp.198,201,210-213)

목이 짧은 경우는 목 주위에 부피 또는 볼륨을 주는 헤어스타일은 피한다. 헤어스타일로서는 짧은 스타일이나 위로 올리는 스타일로 최대한 목이 길어 보이도록 유도한다. 중심 부위를 탑(top)쪽으로 유도 하거나 수직 방향으로 끝을 뽕족하게 하거나 층이 나게 해주는 헤어스타일이 효과적이다. 헤어 액세서리는 너무 크지 않는 것이 좋다.

체형에 맞게도 헤어 디자인을 고려한다. 살이 찌고 키가 큰 체형은 자칫 하면 체격이 더욱 커 보일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에 세심한 선택이 필요하다.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에는 요란스럽지 않은 차분한 스타일이 좋다. 살이 찌고 키가 작은 체형은 전체적으로 날씬하게 보이는 스타일이 가

장 중요하다. 짧은 모발의 형태로 단발에 층을 내어 가볍고 깔끔한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은 롱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쇼트 헤어는 더욱 몸을 말라보이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전두부 부위에 높게 하는 스타일은 피하고, 네이프 부분에 낮추어 주는 스타일이 좋다. 마르고 키가 작은 체형은 전체적으로 감쪽하고 귀여운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스타일이 잘 어울리지만 탑 포인트 부분을 높여주는 스타일로 유도하며 모발 끝의 움직임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 발랄함을 준다.

2) 남성 혼례 헤어디자인의 특성

남성 혼례 머리 양식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양식으로 너무 튀지 않으며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도록 꾸민다.

현대 남성 헤어디자인은 커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고머리는 남성헤어의 대표적인 머리로 윗부분의 머리를 가위로 지간 깎기를 하고 클리퍼로 올려친 스타일이다. (<그림4-13>참조) 하이칼라의 연장선에서 귀 양옆과 네이프의 뒷부분을 클리퍼로 치켜 올려 깎고 윗머리가 5-10cm 정도가 되도록 커트한 스타일이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로서 가르마를 타는 형과 ‘올 뺄’형과 윗머리를 모두 앞으로 내리는 형이 있다. 가르마를 타는 경우도 유행보다는 자신의 머릿결에 따라 자연스러운 곳에 가르마를 타게 된다. 상고머리는 특별한 유행 없이 깔끔한 인상을 줄 때 많이 하는 스타일로서 회사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며, 혼례 머리 중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현대의 상고머리는 이발기로 올려 치는 부분과 구레나룻을 너무 바짝 깎지 않고, 자연스럽게 깎아준다.



상고머리

올랙 머리

<그림4-11>전형적인 현대남성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 국제 어디자인연구회, 『남성커트』, 청구문화사, 2008, p.60,
http://www.everyoung.ne.kr)

젤, 무스, 스프레이, 헤어왁스 등의 헤어제품을 발라서 머리를 고정시키기도 하지만, 머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제품을 바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⁹⁸⁾

콘케이브⁹⁹⁾(Concave Style) 커트는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 한 머리 모양이다. 이 커트는 1979년 미용 연구가 강형숙이 낸 우리나라 최초의 헤어 창작집에서 소개되었다. 형태보다는 모발의 흐름과 질감에 포인트를 준, 새롭고 신선한 감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머리모양은 쉼이 움직이는 듯 한 스타일로 ‘형(形)’에서 탈피하여 흐름대로 디자인된 스타일이다. 대체적으로 탑 부위는 언밸런스한 그라데이션¹⁰⁰⁾으로 들쭉날쭉하고 소프트한 멋을 살렸고, 짧게 커팅 한 머리에 스타일링 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웨이브를 주고 축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린 도회풍의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으며 정형화된 스타일에 식상한 세대들이 언 밸런스한 스타일로 변화를 추구했다. 끝을 틴닝(tinning)¹⁰¹⁾ 기법으로 가볍게 처리 했으며 탑 부분을 들쭉날쭉하게 세웠다.¹⁰²⁾

웨이브 스타일은 현대에 이르러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당시 많은 축구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그

98) 이영미, 「한국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pp.95-106

99) 콘케이브 커트(concave cut): 굴곡 있게 들쭉날쭉한 커트

100) 그라데이션(gradation): 그라주에이션(graduation)과 같은 의미로, 차츰차츰 단계적인 헤어 커트

101) 틴닝(tinning): 두발의 길이를 짧게 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두발 솜을 감소시키는 기법

102) 이영미, 「상계논문」, p.98

중에서도 안정환의 퍼머넌트스타일이 가장 유행하였다. 소수 남성들에게만 인기 있던 웨이브 스타일은 안정환의 펌 후 남성들도 강한 웨이브 퍼머넌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였고, <그림4-12>와 같은 내추럴 퍼머넌트, 등도 크게 유행하였다.



바람머리 배윤준 내추럴 웨이브 이승기
 <그림4-12> 젊은 층의 현대남성 혼례 헤어디자인
 (출처:이영미, 「전계논문」, 2004, p.123, <http://tab.search.daum.net>)

또한 미용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팅 퍼머넌트, 디지털 퍼머넌트 등의 기구가 개발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형성 할 수 있게 되었고, 호일 퍼머넌트와 특수 로드의 사용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스타일은 젊은 층에게 매우 인기 있고,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중년층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1) 현대 남성 혼례 헤어디자인 종류

남성의 헤어디자인은 그 시대에 맞는 스타일이 유행하고 즐겨한다. <그림4-7>의 댄디 커트는 라인이 깔끔하고 스쿨 룩이나 정장에 잘 어울린다. 더블 커트는 80년대 유행하던 스타일로 머리에 단차가 있는 전형적인 디스커넥션 커트다. 한쪽을 잘라 덮는 의도적인 스타일로 둥근형이나, 사각형 얼굴에 효과적이다. 샐기 커트는 가볍게 술을 많이 친 머리를 말한다. 모발 속에 공기감을 넣어 스타일링제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울프 커트는 앞쪽이 짧고 정수리 쪽이 긴 하이 레이어 커트다. 유니섹스 시대에 젊은 층의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이다. 보이시해 보이는 여성들에게도 유행하였었다. 언벨런스 커트는 앞머리나 좌우로 포인트

를 줄 수 있다. 일명 어쉬메트릭컷이라 하며 좌우의 균형을 맞추지 않은 머리스타일이다. 주로 젊은 층에게서 나타난다.



<그림4-13>부드러운 현대 신랑 혼례 헤어디자인(출처:http:cafe.naver.com/mrc1492/1689)

레이어 컷트는 겹쳐지는 머리로 전체에 층이진 머리스타일이다. 가장 흔한 스타일이기도 하다.



<그림4-14>남성적인 현대 신랑 혼례 헤어디자인(출처:http:cafe.naver.com/mrc1492/1689)

<그림4-14>의 스왓 컷트는 가위반삭이라고도 불리며, 레웅 머리라고도 한다. 이미지가 강해보이는 컷트이다. 상고머리는 1960년대 유행하던 머리로, 남자들에게 꾸준히 유행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정치인이나, 회사원의 40-50대 남성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스포츠머리 또한 남성적이며 강

해보이는 스타일이다. 1930년대부터 꾸준히 유행한 머리 형태이며 클리퍼로 올려치는 짧은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다.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한다. 옛날에는 남학생의 머리스타일이라고도 하였다. 모히칸 커트는 일명 베컴 머리라고도 한다. 강한 남성 이미지를 어필 할 수 있다. 신랑의 헤어스타일로는 세미 모히칸 커트가 적당하겠다.

제 4 절 전통혼례의 세계화 전략과 헤어디자인 제안

세계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환경이 지구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수렴되며 마침내 동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 민족, 개별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며 온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다.

20세기에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이 세계화의 의식을 가속화했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시차를 제거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압축에서 오는 의식의 동질화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 전 세계는 교류, 상호영향이 증대되었으며, 20세기 말에는 세계적 혼용화(global huybridization) 현상을 이루어 지구거주자들의 의식을 통합하고 특수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의 관계이다. 세계적인 통합의 관점으로는 민족성, 종족성, 민족체 등의 개념들이 이질적인 것이나 이것은 타민족, 타종족에 대응했을 때 의미가 부각되며, 이들 각자가 지니는 독특하고 독자적인 영역은 빛이 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이질성은 세계적 보편성을 실현하는 창조의 기제로서 재형성되어 동질화되고 있으므로 이질성과 동질성은 세계화의 핵심 요소다. 즉 세계화는 지리적으로 독특한 문명들이 상호 침투하여 형성되는 문화현상을 전 세계인이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세계화의 물결은 국적 있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¹⁰³⁾ 그러므로 한국 전통혼례인 우리 고유의 한복을 세계화에 맞게 계량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헤어디자인을 고안하여 국적 있는 세계화를 연

103) 박정숙, 「전계논문」, 2004, p.72

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자국문화를 상품화 하여 세계 속에 내 놓음으로써 세계 속에서 고부가가치로 인지도 높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림4-15>세계화한 한복웨딩드레스
(출처:박정숙, 「전개논문」, 2004, p.63)

일본의 세계화는 허리우드 영화에 투자하며 자국의 의류나, 자동차, 전자제품, 음식 등의 문화를 오래전부터 광고하며 노력해 온 결과라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초밥을 먹고 기모노를 입으며 색다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 기모노의 일종인 유카타는 평상복으로 젊은 여성들이 현대에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카타는 원래 천황이나 귀족들이 목욕한 후에 입는 옷이었다. 무로마치시대 말기에서 에도시대 초기에 이르러 민간에게서도 유카타를 이용하게 되었다. 외출복으로 입게 된 때는 메이지시대 이후이다. 옷감도 처음에는 마(麻)로 만들었다가 점차 다루기 쉬운 면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화학섬유나 혼방 옷감을 이용한다.

우리도 한복을 평상시 외출복으로 편리하고 예쁘게 현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고급스럽게 파티 복으로 만들어 예식이나 파티 때 즐겨 입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 속에 高부가가치의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 다문화 사회로 시작하는 국제결혼시대의 전통혼례 제안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100만 시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다문화의 시작을 말한다. 다문화는 여러 인종의 혼합과, 여러 문화의 혼합을 의미한다.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고급문화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다음 세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므로 극소수만이 그 특권을 누린다는 ‘단선적인 엘리트문화’(Unilinear elite culture)를 볼 수 있다. 또한 ‘지배적인 남성의 대중문화’(Dominant masculine mass culture), 그리고 고급과 저급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수많은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다선적인 민중의 (하위)문화’ (Multilinear popular(Sub) culture)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3단계의 문화발전 현상 중에 다문화현상은 다선적인 민중문화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정책에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 주의는 1970년대 국제사회에서 캐나다, 호주에 의해서 주목 받았다. 또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 주변민족 집단과의 공존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도입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다문화주의를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하여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¹⁰⁴⁾

세계화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한 나라에 공존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 일 수 없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다 문화권에 접어들어 이 유에는 외국인 근로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2000년대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이주결혼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1990년대 후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이 추진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의 결혼하는 형태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되면서 이중문화가족(dual-culture family) 또는 다문화가족(multi-culture family)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그래서 다문화로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 민족의 남녀가 만나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104) 김정란, 「다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0

보통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이라 표현한다.¹⁰⁵⁾

[표4-1] 국제결혼 증감비율

(2008.12.31.단위:명)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25,182	34,17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증가율 (%)	-	37.8	27.9	28.5	31.4	25.0	17.7	11.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한국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변화의 추이로 볼 때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의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¹⁰⁶⁾

105) 김혜진, 「다문화 시대에 따른 가족윤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3

106) 오성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진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0,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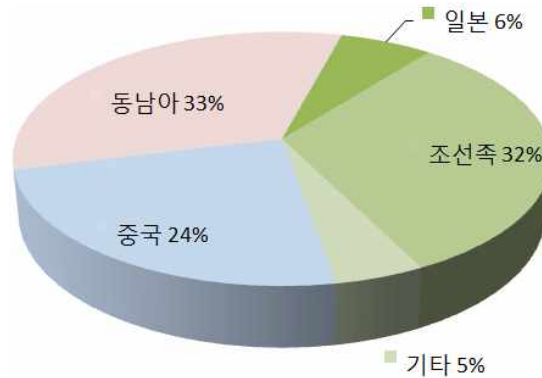
<그림4-16>우리투자證,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공동개최

(출처:<http://cafe.naver.com/asiango1004/692>)

이주 결혼여성의 유입 형태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통일교의 국제결혼 사업인 ‘참 가정 운동’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일본인 여성교도와 한국인 남성교도간의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통일교 측에서 범세계적인 참 가정 운동을 벌여 통일교도 이외의 필리핀과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대거 ‘축복 결혼’ 대열에 합세시켰으며, 통일교가 아닌 한국남성들도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결혼정보회사나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계 중국인의 결혼과 통일교를 통한 필리핀, 태국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소련지역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결혼비용은 국제결혼 정보회사에 따라, 결혼 여성의 출신 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결혼 성사비용은 보통 200-300만원 정도로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결혼 정보회사는 인터넷에 오른 여성들이 사진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 주며 한국남성이 결혼의사를 밝히면 일정을 조절하여 혼인절차를 대행해 준다. 이러한 과정은 먼저 한국에서 출국하여 다음날 맞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날 한국영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다. 45일 후에는 2차 출국하여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입국하면 2개월 뒤에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표4-2]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가별분포도



<2008.12> (단위:%) (출처:통계청, 인구동태, <http://kostat.go.kr>)

결혼 정보회사나 개인브로커 등 결혼시장을 통한 국제결혼은 한국 남성의 직장을 속이며, 자국에 송금 가능성, 한국에서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관한 허위정보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¹⁰⁷⁾

한국은 세계화 하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문화, 윤리 차이에 기인한 어색함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양극화의 심화는 새로운 소외계층을 인종집단으로 묶어버리고, 더욱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문화에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틀마련의 제도가 시급하다. 물론 한국의 첫인상인 혼례에 대한 문화접근도 우리의 전통이 들어간 혼례를 맞이함으로써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주로 농촌으로 시집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혼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인해 사회에서 단체혼례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통이 담긴 혼례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이것은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것을 알리는 또 다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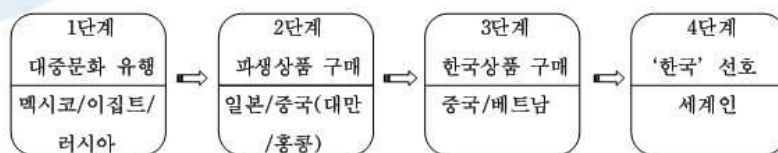
2. 한류를 통한 전통혼례 헤어디자인의 세계화 전략

107) 김현희,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2007, pp.12-13

1990년대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불어온 한류(韓流)는 이제 특정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환경이 전혀 다른 아시아 전역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대도시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댄스, 음악, 드라마 등 대중문화 상품들이 크게 유행된 ‘한류’ 현상은 역사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해 본적이 거의 없었던 중국인들에게는 참신한 경험이자 충격이기도 했다. 영화, 음반, 드라마, 등 한류의 중심에 있는 장르와 관계있는 상품의 수출 증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류의 중심 장르와 직접관련이 없는 음식, 의류, 가전제품, 컴퓨터, 이동통신, 게임, 패션,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구매증진 효과도 가져 왔다. 한류는 대중문화 상품의 판매에서 관련 파생 상품의 판매로 연결되며, 이는 나아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파급 효과를 나타내 준다.¹⁰⁸⁾

한류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 등 대중문화와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문화현상을 뜻한다. 한류란 말은 1999년 11월 2일 베이징 청년 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나타난 신조어로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표4-3] 국가별 한류 확산의 단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류지속화를 위한 방안, 2004)

[표4-3]에서 보면 멕시코, 이집트, 러시아 등은 한국 대중문화가 소개되어 유행을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 일본, 중국(대만/홍콩) 등에서는 한류

108) 진 회, 「한류가 중국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1

관광, 한국음식 등 대중문화 파생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들의 마케팅 여하에 따라 상품 구매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류 마케팅에 화장품, 패션 상품,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 상품 구매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류를 통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유형적 한류와 무형적 한류를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의 육성은, 대외 교역 의존도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국가브랜드를 관리하고, 자국의 원산지 효과를 활용한 수출촉진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수립 할 때, 어떠한 문화제품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떠한 한류를 육성해야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¹⁰⁹⁾



<그림4-17>2007한국음식 세계화 박람회(출처:http://judong.co.kr/332677)



<그림4-18>겨울연가 촬영지 남이섬관광지(출처:http://blog.naver.com/2319217)

한류의 세계화 노력은 한식의 세계화로 빛깔이 다양한 웰빙 음식이 세계 속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9) 이창현, 「한류경험의 유형이 한국 국가브랜드 이미지, 기업 및 제품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99

한류는 드라마, 영화 등으로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관심이 관광사업으로 발전하여 한국의 음식을 맛보는 것으로 세계화는 확대된다. 드라마나 가수들의 영향으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며, 이것은 국내로 유학생들을 늘리는 계기로 발전한다. 또한 한국 배우들의 패션이나 뷰티 등을 닮고 싶어 하는 심리는 한국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판매까지 이뤄내고 있다.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결국 한국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떠오르는 또 다른 한류문화는 스포츠나 기타 비보이 등의 우월함이 세계의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는 등 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한류 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4] 한류문화의 파생상품



<그림4-19>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코리아 비보이 팀

(2002년EXPRESSION 1등, 2004년 GAMBLER 1등, 2005년 LAST FOR ONE 1등)

(출처:<http://blog.naver.com/elfiris/150052188782>, <http://blog.naver.com/seniorc/20027616256>)



소녀시대

카라

<그림4-20>한국 인기 걸 그룹

(출처: <http://media.daum.net>, <http://v.daum.net/link/8906736>)

최근 나타난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을 살펴보면 드라마에 대한 한류가 30, 40-50십대 여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제는 한국 아이돌의 걸 그룹이나 남성그룹으로 눈을 돌려 10-20대 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그림4-20>참조) 한국 아이돌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예쁘며, 모델 급의 신장과 스타일도 매력적이다. 외모만 봤을 때는 아이돌 같지 않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할 때 표정은 소녀의 귀여움을 간직하고 있어서 한국의 소녀시대나, 카라, 등 일본 남성들까지 매료시키고 있다. 5인조 걸 그룹 '카라'의 소속사 'DSP 미디어 재팬'은 <닛케이 엔터테인먼트> 에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 등 한.일 간 스타일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 여성들도 한국 아이돌을 보고 '귀엽다, 닥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워 넘치는 여성 아이돌의 매력에 신선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잡지는 남성 아이돌이 멤버 각자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데 비해, 여성 아이돌은 비주얼, 음악성, 패션성에서 일본 10대, 20대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인터넷 모닝뉴스의 최창남 기자는 말하였다. 그밖에도 세계미인을 뽑는 2007년 이하늬가 출전한 미스유니버스에서도 한국전통의상인 한복의 멋스러운 컬러와 겹쳐지는 치마단의 소재는 우아하고 화려했다. 헤어는 곱스려운 가채로 장식 하여 미스유니버스 <그림4-21>대회에서 전통의상1위를 차지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빛냈다.



<그림4-21>2007년 미스유니버스대회 이하늬 전통의상1위(출처:<http://babyuchunluv.blog.me>)



<그림4-22>2010동계올림픽피겨 금메달김연아(출처:<http://cafe.daum.net/whwodls11>)

그러므로 세계가 우리문화에 열광할 때 한국 혼례문화나 멋을 현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세계화 하는 연구가 적절한 것이다.

3. 현대에 나타나는 전통복과 헤어스타일의 변화

현대사회는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파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파티 문화에 대한 관심은 파티를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점차적으로 생활의 일부분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파티 문화는 동일한 생활목표, 가치관, 생활방식을 지니는 사람들끼리 자신만의 생활범주를 만들어 가려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혼도 파티의 형식으로 외국 유학의 길이 많아짐에 따라 서양의 파티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4-23>최근 돌잔치에 나타나는 전통스타일
(출처: 『월간웨딩21』, 2010년11월호, pp.181-182, 193, 8월호p.232)

또한 돌잔치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즐길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고 드레스를 갖춰 입는 등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만한 모습은 우리의 옛 헤어스타일과 현대적으로 계량화된 전통 한복스타일의 드레스를 입는 것이다.

한류의 바람이 불면서 국내 여자배우들이 한복의 현대화한 드레스를 입고 한복의 우아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제 칸 등의 시상식에서도 한복을 입어 한국의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일제문화말살정책이 우리문화에 대한 저급, 구식으로 만든 것이 현대에 와서 세대가 바뀐 젊은 층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계속되는 이런 문화들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서구혼례의 모방으로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혼례도 현대에 맞게 적용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전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4-24>레드카펫위의 한복드레스 입은 여배우들
(출처: <http://cafe.daum.net/ss7733zzcx/2BTo/61>)

4. 현대에 맞는 전통혼례문화와 헤어디자인 제안

오늘날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 간의 접촉과 사람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각 국가들은 투자 유치와 관광촉진, 수출 진흥, 이민자 및 유학생의 유치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의 관심과 존경, 신뢰를 얻기 위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국가 간 경제의 핵심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한국은 인구 13억의 전통 있는 문화대국이자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인도와 더불어 세계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중국과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번영과 직결되는 일이다.¹¹⁰⁾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제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패션의 흐름도 유행이라는 주기와 함께 더 이상 공간적 제약은 받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더욱 획일화 되어 지고 정형화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이 시점에서 오히려 각 민족이나 국내·외 국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¹¹¹⁾

그러므로 현대에 맞는 혼례문화와 혼례복, 헤어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먼저 현대에 맞는 혼례문화에 대한 첫째 제안은 한국 사회는 오늘날보다 더 서구화, 국제화된 사회로 혼례 의식이나 혼례복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국제화될 것으로 예견된다.¹¹²⁾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 혼례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모두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自矜心)을 갖는 일이다. 우리의 혼례문화를 과소평가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110) 이창현, 「전계논문」, 2009, p.90

111) 이남옥, 「전계논문」, 2006, p.125

112) 박정숙, 「전계논문」, 2004, p.116

구습(舊習)인양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혼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

김소은의 「현대 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의 전통혼례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젊은 남녀의 전통혼례복의 미래에 대한 답변이 예식에서 전통혼례복은 없애도 된다가 남(2.1%) 여(1.4%), 전통혼례복은 현대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가 남(60.4%) 여(51.4%), 기존대로 서양식 혼례복이 더 활용되어야 한다가 남(2.8%) 여(4.3%) 전통혼례복이 더 활용, 장려되어야 한다가 남(32.6%) 여(40.0%)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전통혼례복 뿐만 아니라 혼례복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도 현대에 맞게 개발해야 함이 현시점에서도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혼인 당사자, 그리고 부모 나아가 혼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혼례의 의미와 절차, 혼례복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국가적 캠페인 등으로 교육해야 하겠다. 이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통혼례문화가 정착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국제화된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혼례문화가 전승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혼례식에 있어서 점차 세계문화가 파티문화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식은 전통혼례식의 현대화된 혼례드레스나 헤어스타일을 하며 2부로 서양식의 드레스를 입고 밤에 어울리는 파티를 즐겨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전통혼례에서 양이 가고 음이 온다는 뜻으로 밤에 혼례를 행한 뜻이 적용된다.

셋째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지긴 하였으나 일본강점기 시대에 의례준칙을 내세워 우리의 전통혼례를 구식으로 만들고 혼례가 서구화된 시점에서 일본혼례의 약혼식이 생겼다. 최근에는 대부분 약혼식을 생략하는 경우지만, 이것은 일본의 잔재라고 바로 알려야 하겠다. 또한 우리의 잔치라는 명칭이 일본식의 피로연이라는 말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사용되어가고 있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본식 후 이행되고 있는 폐백은 현 구고례라는 말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전통에 대한 무지라 할 수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우리의 전통을 바로 찾

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혼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의례절차마저 변질되어 혼례의 무규범, 외형적 허례의식, 무분별한 서구화 추종 등 혼례문화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현상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지나친 물질추구는 혼인의 참뜻과 의미를 상실케 하고, 생활의 편리성과 삶의 질적 향상의 비중이 커가며 그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히 건전한 혼례문화의 정착(定着)을 위한 혼례문화의 개선으로 혼례의 본질(本質)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이는 분수를 넘지 않는다는 의식전환의 자세가 필요하며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의 윤리로서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혼인 당사자와 주관하는 이의 주체적인 노력, 사회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실천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종교계, 시민단체 학교 등에서 혼례 준비교육을 통한 꾸준한 계몽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국민의식이 변화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현대 혼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혼례문화에 대한 현대화된 혼례복에 맞춰 혼례 헤어디자인을 제안하기로 하겠다. 제안에 앞서 남성 헤어디자인의 경우 전통식은 머리길이의 문제가 따르므로, 본인의 머리에 관모나, 두건 등의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정도가 현실에 맞겠다. 그러므로 혼례 헤어디자인의 제안은 여성의 스타일만을 하도록 하겠다. 혼례 헤어디자인은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인만큼 신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신부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신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메이크업이나 혼례복, 헤어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 혼례복만큼이나 헤어디자인의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얼굴형과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신부의 얼굴형에 맞으며 세계화에 가능한 현대적인 전통혼례 헤어디자인을 6가지 얼굴형으로 나누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일러스트레이션에 앞서 얼굴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얼굴형에 따른 혼례 헤어디자인 계획

얼굴형 결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위하여 원광대박사논문인 양정순의 「6가지 얼굴형에 어울리는 화장기법과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시각에 관한 연구」 2010 논문을 참고로 하겠다. 양정순의 논문은 얼굴형의 각 부분을 계량화, 수치화 하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얼굴형은 4-7가지로 분류되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대비 가장 많은 얼굴형은 6가지로 계란형, 둥근형, 긴 형, 역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으로 조사되었다. 각 얼굴형의 비율과 분위기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5] 얼굴형에 따른 시각적 특징 및 인상

얼굴형	얼굴너비 (cm)	얼굴길이	가로세로비율	시각적 특징 및 인상
			표준형비율 1:1.37	
			한국미인 1:1.44	
계란형	12.7	18.4	1:1.45	단아하면서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청순 부드러운 이미지가 대표적임
둥근형	13.9	18.6	1:1.34	이마가 둥글며 짧고 넓음, 귀엽고 어려보이면서 온화해 보임
긴 형	13.6	20.1	1:1.48	얼굴너비와 코 너비가 좁아, 코와 턱이 길어 보이는 전형적인 긴 형. 성숙해보이고 가련해 보임
역삼각형	14.0	18.2	1:1.3	표준비율 보다 낮고 양미간이 넓고 턱선이 좁으며 광대뼈가 높은 위치에 있음. 세련 되 보이고 날카로워 보임
사각형	14.4	18.8	1:1.32	얼굴 폭이 넓고 길며 턱 결절길이와 하안부 길이가 길어서 아래턱이 발달한 직사각형 얼굴 소극적여 보이고, 강해보이기도 함.
마름모형	12.7	18	1:1.42	얼굴너비에 비해 이마길이가 짧고 얼굴 위아래가 뽕족하여 날카롭게 보이며 볼 뼈가 나와 코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마름모형

(출처: 본연구자가 양정순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표4-6]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디자인 제안

얼굴형		혼례 헤어디자인 제안 계획
계란형		윤곽을 가리지 않은 헤어스타일이 효과적이고 귀가 보이는 정도의 올린머리
둥근형		시선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올린머리, 반 올린머리
긴 형		우아하게 얼굴양옆사이드에 볼륨감 형성하는 낮은 올린머리
역삼각형		반 묶음의 땡은 머리나 턱 선의 아주 낮은 올린머리
사각형		사선을 이용, 착시효과를 유도 비대칭 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하는 올린머리
마름모형		중간 길이의 낮은 올린머리로 얼굴부위를 살짝 가려주는 스타일로 헤어디자인

(그림출처: 미용교재연구회, 『종합미용이론』, 유신문화사, 2005, p.159-161)

(표 출처: 본연구자가 양정순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김소은의 성신여대석사논문인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에서의 설문에 따르면 현대에 있어서 전통혼례복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고려하여 개발할 점으로 불편하다가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거추장스럽다가 19.4%로 높아 이점을 고려하여 간편한 현대 스타일로 제안 하였다.

2) 이미지 맵과 일러스트레이션 제안

[표4-7] 달걀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1. 달걀형 얼굴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뽀은 머리 형태의 모양, 질감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췌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설명	달걀형 얼굴은 모든 머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모양으로 디자인 하였다.
이미지출처	「이남옥 전개논문」, 2006, p.80 (드레스) 「박현주 전개논문」, 2009, p.56 (헤어스타일) http:hair.culturecontent.com (신윤복그림-연당의 여인 부분도)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이미지)

[표4-8] 둥근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2. 둥근형 얼굴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뽕은 머리 형태의 모양, 질감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채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설명	둥근 얼굴형을 보완하기 위해 양옆의 사이드는 볼륨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붙이고, 시선은 위로 향하게 족두리 모양으로 포인트 주어 얇게 뽕은 머리로 꾸며주었다.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hhyunsun/28569836 (이윤미 족두리사진) http://news.mk.co.kr (족두리 이미지) 이남옥, 「전계논문」, 2006, p.81 (드레스)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이미지) http://hair.culturecontent.com (신윤복그림- 아기 업은 여인 부분도)

[표4-9] 긴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3. 긴 얼굴 형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뽀은 머리 형태의 모양, 질감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췌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설명	앞머리를 가려주어 긴 얼굴을 보완하였고, 두 가닥 뽀기 테크닉으로 머리 한쪽 위선부터 귀 옆선으로 타고 내려와 사이드의 볼륨감을 주어 둥글게 보이도록 하였다. 턱 선 길이의 C컬 단발은 얼굴길이를 턱 선까지 끌어주어 달걀형에 가깝도록 현대적이면서 사랑스럽게 표현하였다.
이미지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김홍도그림-큰머리 여인)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이미지) http://wef.co.kr (하단 드레스) http://cafe.naver.com/feko/470918 (오윤아) http://blog.naver.com/madam_ming/70094016392 (두 가닥 꼬기 뒷모습)

[표4-10] 역삼각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4. 역삼각형 얼굴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땅은 머리 형태의 모양, 질감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췌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 설명	사이드 가르마를 타서 얼굴형을 보완하고 사이드 하단으로 모아 묶어 턱 부위에 볼륨감을 주어 뾰족해 보이는 느낌을 완화하였다. 또한 묶어 꼬아놓은 머리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웨이브머리는 자칫 딱딱해 보이는 얼굴을 부드럽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madam_ming/70094016392 (한가인, 옆모습)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이미지) http://hair.culturecontent.com (김홍도그림-사녀도, 무용총벽화그림-묶은 중발머리) http://wef.co.kr (드레스)

[표4-11] 사각형 얼굴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5. 사각형얼굴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뚝은 머리 형태의 모양, 질감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췌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설명	세 가닥 뚝기 테크닉으로 얼굴형을 부드럽게 하고 포인트를 위쪽사선에 두어 결점을 보완 했다.
이미지출처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 이미지) http://hair.culturecontent.com (작자미상-선조조기 영회도 부분) 손미경, 『전게서』, 2004, p.273 (작자미상-미인도) http://wef.co.kr (드레스) 이남옥, 「전게논문」, 2006, p.81 (드레스) http://blog.naver.com/hongsh1049/4011230932 (하단머리모양)

[표4-12] 마름모 얼굴형 헤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6. 마름모형 얼굴	
	
조선시대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계획하였고, 이미지는 웨이브의 질감 모양을 찾아 이미지화 하였다. 드레스는 한복드레스 패션쇼에서 발췌한 것으로 디자인 한 머리와 어울릴 만한 작품을 뽑아서 이미지 맵 하였다.	
디자인설명	물결 웨이브를 얼굴선으로 흐르게 하여 마름모형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가려주고 웨이브 진 헤어에 곱게 땀아 여성미를 더해주었다.
이미지출처	http://hair.culturecontent.com (신윤복그림-서생과 아가씨 부분도) http://minihp.cyworld.com/pims/main (상단이미지) 서귀임, 「전계논문」, 2009, p.22 (올림머리 얼굴) http://blog.naver.com/madam_ming/70094016392 (땀은 머리) http://wef.co.kr (한복드레스) 이남옥, 「전계논문」, 2006, p.80 (드레스)

제 5 장 결 론

혼례를 대례지전(大禮之典)이라고 한다. 인격체인 한 남자와 여자가 반려(伴侶)자가 되어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혼인이라 할 때, 혼인의 궁극적 목적은 인격완성(人格完成)이며, 나아가서는 인간완성(人間完成)에 있는 것이다. 격변하는 산업사회에서 시대적 상황과 여건 속에 전승해야 할 혼인풍속을 어떻게 조화, 창출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원형 그대로의 전승이 바람직하나 그 시대의 생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전 전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는 우리 전통을 담은 혼례 헤어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대중화, 세계화의 전통헤어디자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혼례 및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요인은 사회변화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요약 할 수 있겠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서양의 신문명을 받아들여서는 실학사상에서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가 왔다. 이러한 진보사상이 국민 일반에게 수용된 것은 천주교 및 기독교의 전래와 동학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사회 개혁을 들 수 있는데, 쇄국정책을 버리고 개선했으므로써 전통사회의 붕괴를 보게 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대한제국의 성립은 복식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신교육의 보급, 특히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교육기관과 언론의 보급은 의복 및 헤어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일제강점기시 단발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상투를 자르게 한 사건은 남성의 헤어디자인이 전통에서 현대로 변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혼례식의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은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의례준칙을 들 수 있다. 과소비를 초래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뜻에서 세워진 준칙은 일본의 계획적인 문화말살 정책이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전통혼례가 서구문화와 만나면서 거르지 않고, 일본식, 서구식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추종하다시피 한 현대혼례의 결과다. 그리고 광복 이후 곧바로 맞은 6.25 전쟁은 미국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아 서구형태의 혼례가 대중화 되었다.

셋째로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계획 등의 노력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농촌에서 도시로 생활권이 이동되면서 혼례는 더욱 빠르게 서구화되어 정착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은 세계의 지구촌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세계의 유행이 하나로 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혼례식도 유행을 따라 서구식 형태로 웨딩드레스나 헤어스타일 모든 패션에 있어서 유사하게 변화되고 있다.

넷째로는 문화적 요인으로 세대가 바뀌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 획일적으로 유행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세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혼례의 문화도 이벤트식의 파티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든 혼례나,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함께 즐기는 식의 혼례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연예인들 사이에서는 하와이웨딩 등 외국에서의 혼례식이 치러지고도 있다.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형태로 외국 여성들과의 혼례문화가 생겨났고, 이로써 다문화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다문화시대에는 한류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우호적인 마음을 지닌 외국인들의 증가로 빠르게 진행되고도 있다. 이것은 한국 속에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의 공존으로 우리혼례문화의 정체성과 세계 속에 한국혼례문화의 재정립이 절실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위의 요약으로 볼 때 혼례 헤어디자인의 큰 특징 및 변화는 남성의 경우는 단발령으로 인한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며, 여성의 경우는 개화의 바람으로 종교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또한 남성의 헤어디자인 변화는 강제적인 반면 여성의 헤어디자인은 자의적인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 이후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는 6.25의 전쟁으로 인하여

남성의 머리는 전체적으로 군인머리인 민머리 형태가 많았고, 여성은 경제의 변화와 유행의 흐름에 따라 혼례 헤어디자인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성머리의 변화에 있어서는 미용기술의 발달에 대한 영향도 한 요인 이었다. 70년대는 불안정한 사회 정치에 대한 반발과 반항심에 남성들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이것은 장발의 유행을 낳았다. 이것으로 볼 때 남성들의 헤어디자인은 정치적인 요인에 보다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혼례식의 변화는 옛 부터 현실에 맞게 또는 사회분위기에 맞게 조정되어지며 변화되었다. 현대의 서구식 혼례도 우리문화 속에서 때론 강제적으로 개입되어 변화되었지만 100년 정도의 시간과 함께 이어진 것이기에 또 다른 우리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통만을 고집하기도 서구식혼례만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서구식혼례에 전통식혼례를 잘 융합하여 세계화 할 수 있는 혼례문화로 자리 잡길 고대한다. 더불어 전통적인 혼례 헤어디자인도 세계화 연구에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헤어디자인의 발전과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천은 미용 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도입기로 1900-1929년대에 단발령에 의한 이발소가 등장하면서 미용 업이 시작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여성은 개화 및 종교로 인한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남성은 단발령에 의한 헤어스타일의 변화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강한 저항으로 전통스타일이 더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둘째 발생기는 1930-1950년 한국최초 미용실이 생기는 시기로 현대식 단발머리, 퍼머넌트웨이브, 민머리, 하이칼라 머리모양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한복을 입고 쓰개치마 형 베일을 쓰는 등의 혼례형태가 나타났다. 6.25전쟁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국의 뷰티문화를 제자리걸음 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전쟁으로 남성들의 머리모양이 거의 민머리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성장기는 1960-1970년대로 미용도 국제무대를 열었고, 드라이, 퍼머넌트 등으로 헤어디자인이 다양하게 나타난 시기로 성장기이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볼 스타일, 머시름, 바람머리가 나타났고, 남성 헤어디자인의 특징으로는 사회에 반항적인 장발이 유행하였다.

넷째 성숙기 1980-1990년대의 특징은 칼라의 보급으로 컬러링의 변화를 크게 볼 수 있겠고, 미용실의 프랜차이즈화가 나타났으며, 미용대학이 생기는 성숙되는 시기이다. 여성과 남성의 헤어디자인은 앞머리를 부푼 자존심 머리가 대유행하였고, 웨딩드레스나, 헤어, 메이크업 등 장식이 심한 과장된 스타일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장기를 2000-2010년대까지 나누었는데, 미용업의 특징은 커트 전문 샵이나, 메이크업 전문 샵, 웨딩 전문 샵, 두피케어 전문 샵, 염색 전문 샵 등으로 전문화 되어 확장되고 있다. 헤어디자인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1900년대의 과장되고 꾸밈이 많은 드레스와, 진한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중반부터 현대에 오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웨딩드레스는 탑 스타일로 노출은 심해졌다. 남성들의 헤어디자인은 퍼머넌트부터 다양한 커트 등의 많은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유니섹스의 유행으로 여성스런 남성, 여성보다 예쁜 남성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70년대의 장발형의 긴 머리와는 또 다른 여성의 단발스타일이라던가 포니테일 등의 여성스런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현대 혼례의 문제점은 일제침략기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우리혼례문화가 제지당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일본과 서구문화의 수용에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일본의 약혼식, 답례품 등의 문화 혼용으로 과소비 같은 문제를 낳았다. 또한 잔치라는 우리의 언어가 일본식의 피로연으로 바뀌었고, 현구고례는 의미를 잃고, 폐백이라는 말로 잘 못 이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혼례식의 형식보다도 전통혼례에 대한 무지함이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해방 후 전통혼례문화를 유지 전승할 수 도 있었으나 이미 몸에 베어버린 전통은 또 다른 전통이 되어서 바뀌어 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전통문화란 현시대에 맞게 발전되어 전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격변된 사회변화 속에서 지금 현실의 혼례모습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파악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전통의 의미를 교육하고 전통의 바른 의미를 알았을 때 현재 현구고례가 폐백으로 행하여지는 등 잘못된 우리 문화의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 현대와 맞는 적절한 변화가 이뤄졌을 것이다.

최근 복고풍 유행의 변화로 나타나는 혼례의 현상들을 보면 특이할 만한 것이 1930년대 우리한복으로 된 혼례복과 베일을 쓰고 웨딩촬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돌잔치의 의복에서도 전통트레머리의 헤어와 현대화된 한복드레스를 입는 등의 현상이 젊은 층에게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엔 인터넷에 유럽여행을 떠난 학생이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여학생은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여 우리 것을 알리면서 평범한 여행객이 아닌 또 다른 문화 전달자로서 여행을 즐겼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다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현대에 맞는 한복드레스와 어울릴 만한 헤어디자인을 얼굴형에 따라 6가지로 제안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 땡은 머리가 유행하고 있어서 브레이드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고, 그것은 옛 헤어디자인도 대부분 브레이드(땡은 머리)의 장식으로 행하여 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마치며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꾸자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 이해, 설득 등의 일들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전통혼례 헤어디자인에 대한 세계화 연구와 디자인 제시 헤어 쇼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사회적 동요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의 바람은 본 논문이 전통혼례 헤어디자인에 대한 세계화 연구에 조금이나마 그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아래는 본 논문의 요약을 표로 정리하였다.

[표5-1] 전통 혼례 및 혼례 헤어디자인의 변화 요인

요인	변화 요인	혼례 헤어디자인 변화
종교적	서구 기독교 문화 도입으로 서구식 혼례도 입/개화사상-여성들의 사회지위향상	서양식< 전통식 공존
정치적	일제강점기-의례준칙으로 서구식혼례시행명령(문화말살정책) 단발령-남성 상투 잘림 6/25전쟁으로 혼례문화 주춤	서양식=전통식
경제적	새마을 운동, 산업발달에 따른 도시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국제사회돌입	경제풍요로-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등 모두 지나치게 화려한 시기 서양식 혼례 정착
문화적	글로벌 한류에 따른 다문화 시대 라이프스타일 변화	서양식 혼례 파티 이벤 트 문화로 발전

(출처: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요약 작성한 것임)

[표5-2] 전통 혼례식의 변천

전통 혼례식의 변천	변화 내용
고대혼례 변화기	고구려의 혼속 중 서류부가 혼 여가에선 자기 집 뒤에 소거 해가 지면 사위 될 사람이 집 밖에 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며 무릎을 꿇고 여자와 함께 동숙하기를 원하면 부모가 이를 허락하여 혼거에 서 여자와 함께 동숙. 사위는 준비해온 금전과 패물을 줌. 자식을 낳 아 장대하면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감.
유교영향 혼례 발전기	주자가례(=친영례)에 의한 관혼상제의 의례는 고유의 전통적 의례와 대비-혼례에 있어서 유난히 강한 저항 전통의례인 서류부가 혼의 우리나라 혼인관행과 상관없이 친영례의 실행만을 강요

친영례 도입 혼례 전환기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을 통한 유교이념의 음양의 원리를 지향하는 유교이념과는 달리 전통혼례인 서류부가 혼은 남자가 여가에 머물고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 상반되는 성향 이러한 상황에서 혼례제도에 대한 정비의 일환으로 친영례가 도입 이후에는 혼례의 제도가 달라져 사위가 먼저 신부 집에 이르면 신부가 나와 예를 행하며, 교배합근(交拜合簪)하고, 다음날 구고(舅姑)를 알견(謁見)삼일우귀(三一日于歸), 삼일친행(三一日親行) 등으로 불리는 반친영의 시행을 의미
전통혼례 확립기	고려 말 주자가례를 근거로 한 중국의 혼례를 도입 사대부 층에서 우리나라 혼례의 이상형을 다루어 제시 그 중 육례와 사례가 있는데 가장 보편화된 것이 「사례편람」 편람의 혼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네 단계
전통혼례, 일본, 서구혼례 문화 이중구조	개화 초-빈곤한 사회 계층,기독교도 중심 일반 민가에서 몇몇 친지들과 간단하게 거행하는 ‘복수결혼(福手結婚)’ 혹은 ‘작수성례(酌水成禮)’-작수성례는 찬물을 떠놓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지켜보는 데서 행하는 간소한 결혼 1900년도에는 불교에서도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라는 개량혼례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혼례의 장소로써 신부 집 이외에 신사와 사원 또는 교회당을 제시 혼례복도 한복 이외에 화복, 양복을 제안 일본 문화 피로연이 잔치란 말을 대신 답례품 풍습이 등장 도시- 신식혼례, 농촌-구식이라고 하는 전통 유교식 혼례 이중구조
근대혼례 문화	신식 명분아래 보편화, 급속도로 확산-예식장 신식혼례가 일반적 서양식 혼례 후 폐백, 피로연의 현대식 혼례양식 대중화 1969국가시책 가정의례준칙-허례허식 번잡한 혼례식 개선 생활양식, 종교영향, 신구 혼례 혼재, 혼례절차 각양각색의 모습 경제발전-예물의 ‘필수품목’이 뚜렷했음. 1960년 말 1970년대 사이-다이아몬드반지, 고급시계가 등장 1980년 이후부터 예물보석 Set가 필수 예물품목으로 등장

(출처: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요약 작성한 것임)

[표5-3] 혼례복의 변천

혼례복의 변천	내 용
---------	-----

전통 혼례복 갑오경장 이후	대부분이 전통혼례 신랑 자적 색 또는 청색의 단령 포에 학 흉배를 달고 각대를 끼고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음. 신부는 녹의홍상위에 초록색 원삼
전통 혼례복의 서구화 일제강점기	대부분 전통 혼례복/ 일부만 신부 흰색 치마저고리 화관 쓰개치마 형 베일을 이마까지 내림 흰 장갑을 착용/신랑은 모닝코트 흰색 저고리에 흰색 양말, 흰 구두를 신고 흰 장갑 이마를 덮는 화관에 베일
6.25 이전 이후 (1930-1950) 과도기	신부의 예복에는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한복을 착용 베일은 이마를 덮을 정도로 눌러쓰던 형태에서 이마를 드러내기 시작/명주로 웨딩 한복을 만들고, 치마에 부케와 동일한 꽃을 달아 장식.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 화관을 씌. 6.25 사변 잠시 평상복 차림으로 결혼식 미군주둔은 양복과 결혼예복을 일반화 시키는데 기여 1955년 이후 본격적인 서구식 웨딩드레스의 예식이 도입 웨딩드레스 1930년대 등장한 예식장에서 대어 시작 1956년 국내 최초 패션쇼를 통해 웨딩드레스가 디자이너에 의해 발표
산업화 시대 (서구 혼례복식의 발전기)	단순한 스타일 허리선을 강조하지 않는 A-line, H-line의 드레스/짧은 베일과 긴 트레인/1967년 치마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미니 웨딩드레스가 등장/보석이 장식된 크라운 화관
지구촌 시대 (1980 가장 화려한 웨딩드레스 시기)	어깨와 스커트를 부풀리는 과장되고 화려해지는 양상 코사지 장식이나 리본장식이 더욱 과장된 형태로 등 뒤나 허리, 어깨에 포인트
디지털, 정보화 시대 (1990-2000)	장식을 절제한 심플한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주류 선호하던 심플한 라인에서 점차적으로 레이스, 리본, 프릴 등의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사용하는 로맨틱 무드의 웨딩드레스가 유행/장식이 절제 되면서도 고급스러운 품격과 도회적 세련미
다문화, 글로벌 시대	상체노출의 과감해진 유행으로 탑 스타일 드레스

	디자인은 심플하나 크리스탈 장식으로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가 유행. 실크소재, 새틴소재, 가벼운 소재 (출처: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요약 작성한 것임)
--	---

[표5-4] 미용 산업 발달에 따른 유행 및 혼례 헤어스타일

발달 시기	여성 유행머리	남성 유행머리	여성혼례머리	미용 산업발달
도입기 1900 - 1920	쪽머리, 땡기머리 팜프도어, 어여머리	상투머리, 개화머리인 하이칼라 머리모양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족두리를 쓰고 도투락 땡기 쪽진 머리, 서북은 엷은머리	1920년 일본인 경영 경성 미용실-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 이발소-개화당제조소
발생기 1930 - 1950	단발머리 웨이브 까미 머리, 애교머리 등의 올린 머리스타일 에도 웨이브	민머리, 짧은머리에 모자 유행	팜프도어/트레머리/쪽머리/둘레머리 단발머리, 펴, 까미머리, 헵번스타일은 뒷머리가 짧은 쇼트 스타일	직업인 미용사 1933년-화신 백화점.오엽주-화신미용부 한국인최초. 아이론, 세트펌 기구처음도입 1948년 1회 미용사자격증시험 콜드 펴액 수입.
성장기 1960 - 1970	단발 붐스타일 상고머리 머시름 바람머리	상고머리 긴 스포츠머리 짧은 스포츠머리, 올빽, 장발	듀오라인/상고머리 블로우 드라이의 바람결 스타일, 퍼머넌트 헤어	대한미용사협회-뉴욕 1972년 국제무대 월간현대미용-최초미용잡지 50년대-전쟁으로 인한 가난 전통헤어지속 60년대 현대양식전환
성숙기 1980 -	담벼슬' 머리스타일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올빽, 상고스타일, 하이칼라스타일, 앞머리 스트레	앞머리를 세운 올린머리, 굵은 웨이브 셋팅을 맡고 위	1982-세계미용연맹O.A.I 정식 회원국가입 미용실프랜차이즈화 1991.미용학과개설-전문

1990	염색머리 블리치 핑크헤어	이트머리 유행, 개성 강한 힙합스타 일의 머리, 레옹 머리, 바람머리	로 올려 주는 머 리모양이며, 앞머 리는 젤이나 무 스로 깎았모양	인력 양상 시작 헤어무스, 젤 발달
확장 기 2000 - 2010	익스텐션,레 게,디스커벡 션커트,비대 칭컷,컬러,클 레식일자라 인물결웨이 브 쇼트커트	상투머리를 제외하고 모 든 머리가 자신의 이미 지에 맞게 다양/커트는 스트록 커 트, 샐기 커 트, 등 단 발 머 리 나, 포니테일	얼굴형에 따라 올려 묶거나 내려묶거나 풀어 뜨거나 하는 등, 각자 개인적인 취향 2000년 초에 꽃 화관이 등장	탈모, 두피케어시장 헤어의 전문샵 등장 전문화시대로 확장된 시 기

(출처: 본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요약 작성한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영숙, 『웨딩헤어디자인』, 훈민사, 2004
- 고부자, 『우리생활100년』, 현암사, 2001
- 국제헤어디자인연구회, 『남성커트』, 청구문화사, 2008
- 권순만, 『종합관혼상제』,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2002
- 김광부, 『결혼사진 특강』, 해돋이, 1989
- 김수정, 『한국미용100년』, 동서미용연구회, 2005
- 남상민, 『한국전통혼례』, 한국예절 문화원, 1989
- 미용교재연구회, 『종합미용이론』, 유신문화사, 2005
- 손미경, 『한국여인의 발자취』, 미디어 뷰, 2004
- 손미경, 『고전머리따라하기』, 손미경 고전머리연구소, 2007
- 신혜원의 4인, 『의복과 현대사회』, 신정, 2009
- 이복자외, 『Up style step by step』, 미디어뷰, 2007
- 이온숙, 『No Blesse up-style』, 명문미용전문학교, 2003
- 이은순, 『여말 선조의 사회변동과 성리학사상의수용』, 지식 산업사, 1996
- 임숙자외3인, 『현대 의상사회 심리학』, 수학사, 2009
- 전선정외, 『미용학과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2004
- 황현, 『매천야록』, 한양출판, 1995

【국내 학위 논문】

- 강재순, 「업스타일의 유형에 따른 작품 분석」, 용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강정림, 「한국 사회변동과 혼례문화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송희, 「얼굴형과 웨딩 업스타일에 따른 신부의 인상형성 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경란, 「다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

- 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혜진, 「다문화 시대에 따른 가족윤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소은, 「현대혼례에 나타난 전통혼례복의 변천과 실태」,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인자, 「한국의 조형미가 나타나는 예복 디자인연구」, 건국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진숙, 「한국여성 전통머리 양식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이든,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용순, 「현대 헤어스타일의 예술사적 요인에 대한 동조성 연구」, 용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홍우, 「예비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웨딩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0
- 나윤영, 「한국 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문병옥, 「한국 여성 헤어스타일과 미용회보 표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 남부대학교산업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정숙, 「개화기 이후 한국 혼례복식의 변천동인과 미적특성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현주, 「20세기말과 21세기 초에 나타난 여성 웨딩코디네이션 비교」,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귀임, 「시대별 신부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손복심,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혜성,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신치균, 「혼례문화로 본 예식장 건축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양정순, 「6가지 얼굴형에 어울리는 화장기법과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여해란, 「하우스예술파티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영미, 「한일 양국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상수, 「혼례시설의 실내설계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남옥, 「전통혼례복을 응용한 한국적 웨딩드레스 개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경옥, 「헤어디자인의 발달사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창현, 「한류경험의 유형이 한국 국가브랜드 이미지, 기업 및 제품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영미, 「한국 남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민정, 「한국적 이미지의 웨딩드레스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미여, 「20세기 한국미용에 나타난 업스타일 기법에 관한 고찰과 재현 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경희, 「한국의 조형미가 표현된 혼례복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민희, 「웨딩 코디네이션의 선호도 연구」, 한남대학교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진 회, 「한류가 중국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진은, 「우리나라 웨딩문화의 특성과 소비자구매행동」,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한성진, 「현대 퓨전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서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황미경,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간행물】

- 김현희,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2007
- 문화관광부, 『우리 옷 이천년』, 한국복식문화2000년 조직위원회, 2001
- 박선경외1인, 『디지털 시대의 한국적인 패션디자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 박성실외1인, 『평양지방의 민속복식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삼성경제연구소, 『한류지속화를 위한 방안』, 2004
- 오성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 진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0
- 유희경, 『한국 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 『더 웨딩』, 2008년 1, 2월호
- 『마이웨딩』, 2006년 5월호, 2010년 12월호
- 『미용회보』, 1993년 11월호, 94년 3월호, 12월호, 96년 6월호
- 『오피스웨딩』, 2009년 8월호
- 『에스콰이어』, 2007년 3월호
- 『엘르』, 2007년 12월호
- 『웨딩앤』, 2010년 1월호 겉표지
- 『월간웨딩21』, 2010년 11월호
- 『헤어그래피』, 2009년 11월호
- 『choki girls』, 2010년 4월호

【인터넷】

<http://news.naver.com/main> (대전일보)

<http://dna.naver.com>(1992년4월18일 동아일보: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25면/1994년3월14일 경향신문: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11면)

<http://cafe.dayn.bet/usyc14>

<http://www.okwk.com>

<http://hair.culturecontent.com>

<http://cafe.daum.net/zeki/5Lc9/46>

<http://blog.naver.com/eun940315/60090239345>

<http://moyangkorea.com>

http://cafe.daum.net/tin_amaakeuphair

<http://www.everyoung.ne.kr>

<http://tab.search.daum.net>

<http://blog.naver.com/ishu42>

<http://blog.naver.com/ubotem>

<http://cafe.naver.com/suhjs01>

<http://kin.naver.com>

<http://photo.naver.com/view>

<http://cafe.naver.com/beautynmusic>

<http://tab.search.daum.net>

<http://blog.naver.com/lhj5728>

<http://blog.naver.com/figurestar>

<http://news.naver.com>

<http://news.naver.com/main>

<http://blog.naver.com/kskim719>

<http://blog.daum.net/wddiva>

<http://blog.naver.com/sabaly73>

<http://cafe.naver.com/shyshy0326>

<http://blog.naver.com/hanc2010>
<http://fotoya.net/common/photoviewR>
<http://everyoung.ne.kr>
<http://blog.naver.com>
<http://www.saemoonan.org.church>
<http://everyoung.ne.k>
<http://cafe.naver.com/mamj8836>
<http://cafe.naver.com/beautydodo/196>
<http://cafe.naver.com/mrc1492/1689>
<http://cafe.daum.net/jarado/1004>
<http://blog.naver.com/shiahair>
<http://tab.search.daum.net>
<http://sport.chosun.com>
<http://cafe.daum.net/ok211>
<http://v.daum.net/link/7415334>
<http://cafe.daum.net/easims>
<http://blog.daum.net/puruns>
<http://cafe.daum.net/tribbonskin>
<http://blog.naver.com/fadette05>
<http://blog.naver.com/4ontheborder>
<http://blog.naver.com/mylucenlee>
<http://cafe.naver.com/carmy/290>
<http://image.search.daum.net>
<http://kchju659.woorweb.net>
<http://babyuchunluv.blogme>
<http://blog.naver.com/numantia77>

ABSTRACT

The study on the new design of wedding hair and the changes in wedding hair according to social environment.

- Focusing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wedding hair design -

Kim Dong Hwa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Korean traditional wedding culture has been preserved for five hundreds years. But it has changed oppressively by Japanese imperialism, Korean War, and military regime and also been westernized according to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consumption for the last 100 years. Accordingly wedding-hair design has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e wedding-hair design of men was forced to change by a edict or war. On the other hand, that of women was affected by the influence of religion or increasing in income. In this thesis, the transition of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for the last 100 years will be studied,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wedding-hair design and ways to globalize the Korean traditional

beauty according to the current of "Han-Ryu" and the multi-cultural society will be searched. To this end, the new six models of the traditional wedding-hair design, which are well-matched with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according to the facial shape, are proposed. This thesis is constituted as follows, chapter 1; the object, methods and bounds of study, chapter 2;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wedding, chapter 3; the detail analysis of the transition of wedding cult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ety, chapter 4; the problems in contemporary wedding culture, suggestion the directions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traditional wedding-hair design, and the illustrated new models of for the traditional wedding-hair design, chapter 5; conclusion.

